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HELLO NEXEN



CREATE
TOMORROW'S VALUE

NEXEN facebook



www.nexentire.com

HELLO NEXEN
Vol.72 2018년 여름호

CONTENTS

2018 Vol. 72



표지 이야기

2018년 〈헬로우 넥센〉의 콘셉트는 '내일을 준비하는 글로벌 No.1 넥센 타이어'입니다. 여름호의 주제는 'CREATE TOMORROW'S VALUE'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갈 내일은 더욱 가치 있습니다.



NOW ON NEXEN

04 줌 인 넥센 1
'2018 퍼플 서밋, 맨체스터' 성료

06 줌 인 넥센 2
노사합동 한마음 산행

08 넥센 뉴스
넥센타이어의 이모저모

18 베스트 파트너
타이어테크 만덕점

22 넥센 갤러리
내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소소한 행복들

26 나눔 스토리
창립기념주간 맞아 글로벌 사회공헌



NEXEN FINDER

34 스페셜 테마 1
넥센타이어 글로벌 히어로즈

38 스페셜 테마 2
2018 넥센타이어 인재 육성 체계

42 스페셜 테마 3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힘, 자존감

46 인터뷰
셰프 정지선

50 넥센인 톡
넥센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여름휴가는?

52 넥센인 생활백서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유머의 기술

56 패밀리 데이
NEW PLM TFT 육남석 팀장 가족의 나들이

60 위 아 더 넥센
창녕공장 성형파트

64 플레이 투게더
파도에 몸을 맡기다

68 피플 & 피플
칭찬합시다



WITH NEXEN

72 메디컬 넥센
여름 바다에서 주의해야 할 6가지

76 진실 혹은 거짓
여름철 피부 관리 노하우

80 넥센 트래블
알찬 재미가 가득한 사이판 여행

86 집밥 넥센생
입맛을 돋우는 다이어트 식단

90 넥센인 맛집
넥센인을 위한 바로 이 집

92 컬처 로드
넥센인을 위한 문화생활

96 넥센 싱크빅
나만의 한 단어

98 Thanks
사우들의 사보 참여 후기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8년 여름호 통권 72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18년 7월 2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 담당 문화혁신팀 (02-3480-0369)
기획 및 출판 (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디자인 김연선, 김지애 사진 사진과책 교정 이은실 프로세스 (주)하이에크컴 (02-741-3377) 인쇄 (주)신우인쇄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축제

‘2018 퍼플 서밋, 맨체스터’ 성료

글/사진 넥센타이어 보도자료



넥센타이어가 전 세계 비즈니스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한 ‘2018 퍼플 서밋, 맨체스터 (2018 PURPLE SUMMIT Manchester)’ 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올해 세 번째로 치러진 ‘퍼플 서밋’은 넥센타이어가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와 고객을 위해 개최하는 통합 마케팅 활동으로, 상호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4월 20일부터 3일간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넥센타이어가 후원하는 맨체스터시티 FC(이하 ‘맨시티’)의 도시인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되었다.

넥센타이어는 올해 9월 가동 예정인 체코 신공장에 대한 계획과 파트너사 우수 사례 발표 등 상호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

또한 4월 22일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와 스완지시티의 경기에 참가자들을 초대해 경기를 관람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일반 관람객들이 브랜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넥센타이어 액티비티 존’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경기 하프타임에는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2월부터 석 달간 개인의 축구 실력을 선보이며 경쟁한 ‘넥센 스킬 챌린지’의 마지막 라운드 경기를 개최해 우수 선수에게 트로피를 수여했다.

강호찬 대표이사는 “올해도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고객을 위한 ‘2018 퍼플 서밋’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퍼플 서밋’이 긴밀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장으로 자리 잡고,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㉞

몸도 마음도 가볍게

노사합동 한마음 산행

글/사진 김태호 (노사협력팀)



4월 22일 일요일 넥센타이어 노사는 화합 도모 및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 임직원 체력 향상을 위해 한마음 산행을 다녀왔다. 휴일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직원 가족 150여 명은 경북 포항 내연산 아래에 모여들었다. 선선한 바람은 산행 전 기분을 한껏 설레게 했다.

처음 보경사(寶鏡寺)에 발을 들였을 때는 힘든 산행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길이 아주 좋았다. 산의 풍경을 바라보니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다. 가족이 서로를 챙겨주면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뒤택지거나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기다리며 챙겨주는 모습에서 노사 임직원들이 하나 됨을 느꼈다. 노사가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정말 감사했고, 산행 행사 준비를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다들 불평 한마디 없이 서로를 챙기고 웃으면서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노사 산행을 하면서 함께 고생해준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번 행사를 치르며 느낀 점을 발판으로 삼아 차후 행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겠다. ㉞

NEWS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데아체 모터벨트> 평가 1위 선정



넥센타이어가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데아체 모터벨트(ADAC Motorwelt)>가 실시한 사계절용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자사의 ‘엔블루 4시즌’ 제품이 ‘1위’에 선정됐다고 지난 5월 밝혔다.

<아데아체 모터벨트>는 독일 뮌헨에 본부를 두고 매월 1,300만 부가 발행되는 자동차 잡지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동차 전문지다.

이번 테스트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9개 브랜드의 사계절용 타이어 제품이 대상이었다. 마른 노면, 젖은 노면, 빙판 노면에서 제동력, 핸들링, 마모, 소음, 연비 등과 같은 다양한 항목을 평가했다.

‘엔블루 4시즌’은 각각의 노면 조건에서 성능뿐만 아니라 연비 효율성에서도 강세를 보여, 총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빙판 노면에서의 코너링과 젖은 노면에서의 브레이킹 테스트에서는 타사 대비 강점을 보이며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인 포르쉐를 비롯해 폭스바겐, 르노, FCA 그룹(피아트-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의 공급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NEWS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 잇따른 본상 수상



넥센타이어가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인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미국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잇따른 수상을 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1995년부터 주관하며 혁신, 심미성, 활용성 등을 심사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미국의 ‘IDEA’,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넥센타이어가 수상한 ‘엔페라 AU7’은 고급 세단을 위해 개발된 프리미엄 UHP 타이어로 기존 제품 대비 마모 성능과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력을 크게 향상시킨 제품이다. 또한 소음, 진동 부분에서 대폭 강화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프리미엄 차량에서 요구되는 안락한 주행 성능도 확보했다. 여기에 브랜드를 상징하는 ‘7’의 형상적 특징을 디자인에 적용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미국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는 운송 · 수송 부문 수상작으로 ‘브래셔(BREATHRE)’가 선정되었다.

‘브래셔’는 최근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에 기여하고자 고안된 공기 정화 콘셉트 타이어다. 타이어 내부에 공기 정화 필터를 내장하여 대기의 오염된 공기 및 미세먼지까지 걸러 정화된 공기를 배출함으로써 타이어 업계가 환경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디자인박물관과 유럽 건축 · 예술 · 디자인 · 도시 연구센터가 함께 매년 우수한 친환경 디자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넥센타이어 연구소 천경우 부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은 물론 디자인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혁신적 제품을 개발해나감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회사의 제품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EWS

뉴욕 타임스퀘어에 브랜드 홍보 영상 선보여



넥센타이어가 미국 뉴욕의 번화가인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브랜드 홍보 영상을 선보인다.

뉴욕 타임스퀘어는 '세계의 교차로'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뉴욕의 상징적인 거리다.

이번 홍보 영상은 넥센타이어를 이용하는 전 세계 3,000만 명 운전자들의 안전한 여정과 즐거움을 담아내고 있으며, 타임스퀘어 더 피 광장에서 하루 평균 150만여 명에게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넥센타이어 북미지역담당 김종선 상무는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타임스퀘어 홍보 영상을 통해 글로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넥센타이어 홍보 영상은 올해 뉴욕 주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와 타임스퀘어 신년 전야 행사 때도 상영될 예정이다.

NEWS

파트너 맨체스터 시티, 2017/18 영국 프리미어리그 우승 기념 이벤트 실시



넥센타이어가 파트너 맨체스터시티FC(이하 '맨시티')의 2017/18 영국 프리미어리그(이하 'EPL')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이벤트를 실시했다.

'Road to Champion'과 'We are the Champions' 두 이벤트가 5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넥센타이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진행됐다.

먼저 'Road to Champion'은 맨시티 우승 축하 및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고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골드 카드, 고급 헤드셋, 맨시티 파규어 등을 비롯한 다양한 경품을 증정했다.

또한 'We are the Champions'는 맨시티 우승 기념 배경화면 이미지를 다운로드해 본인 PC나 스마트폰에 적용한 인증 사진을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맨시티 사인 유니폼, 블루투스 스피커, 영화 관람권 등을 제공했다.

넥센타이어는 2015년부터 맨시티를 공식 후원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EPL 최초로 '공식 슬리브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맨시티를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꾸준히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NEWS

맨체스터시티FC와 콜라베레이션 통한 브랜드 영상 공개



넥센타이어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FC(이하 '맨시티')와 함께 제작한 새로운 브랜드 영상을 공개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2015년부터 맨시티를 공식 후원해오고 있으며, 2017년 3월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공식 슬리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렇듯 넥센타이어는 맨시티를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꾸준히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새로운 브랜드 영상에는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맨시티 구단의 선수 빈센트 콤파니와 에데르손 모라레스, 벤자민 멘디의 영상과 함께 넥센타이어가 추구하는 기업적 가치를 담았다.

영상의 전반적인 콘셉트는 '스타일리시 모빌리언(Stylish Mobilian)'이다. 이는 자신의 일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와 창의적인 발상을 실행으로 옮기며,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발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넥센타이어는 이러한 콘셉트를 통해 혁신, 고객 친화적 모습, 그리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모습을 담아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시했다.

넥센타이어의 새로운 브랜드 영상은 넥센타이어 공식 웹사이트, 유튜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NEWS

'2018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후원 조인식 체결



넥센타이어가 '2018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하 CJ 슈퍼레이스)'의 공식 스폰서로 나섰다. 넥센타이어는 4월 13일 "상품기획담당 조명국 전무와 주최사인 (주)슈퍼레이스의 김준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CJ 슈퍼레이스'의 'BMW M 클래스 원메이크 레이스'를 후원하는 조인식을 가졌다"라고 밝혔다. 'BMW M 클래스 원메이크 레이스'는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며, 'CJ 슈퍼레이스'를 통해 올해부터 3년간 운영된다. 올해 총 6라운드로 진행되는 'BMW M 클래스 원메이크 레이스'는 4월 22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후 BMW M4 쿠페 모델이 다이내믹한 레이싱의 진수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BMW M 클래스 원메이크 레이스'의 공식 타이어로 지정된 넥센타이어 엔페라 SUR4G는 3년여의 연구 개발 기간을 거쳐 2017년 출시한 넥센타이어의 야심작으로, 우수한 그립력을 자랑하는 레이싱 전용 타이어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의 최고 클래스인 '엔페라 GT-300'에서는 1초 정도 랩타임을 단축시키며 제품의 성능을 입증했다. 또한 美 '2018 포뮬러 드리프트' 1차전에서 '엔페라 SUR4G'를 장착한 프레드릭 아스보 선수가 우승하며 극한의 코너링을 이겨내고 탁월한 그립력을 보여주는 등 기술력을 입증했다.

넥센타이어 상품기획담당 조명국 전무는 "넥센타이어의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이고자 'BMW M 클래스 원메이크 레이스'를 후원하게 됐으며, 극한의 레이싱 조건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기술력을 선보이겠다. 또한 레이싱을 통해 국내외 팬들과 소통하는 기반을 확대해가겠다"라고 밝혔다.

NEWS

獨 국제 타이어 전시회 ‘더 타이어 쉼 2018’ 참가



넥센타이어가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독일 쉼에서 열린 타이어 전시회 ‘더 타이어 쉼 2018’에 참가했다. ‘더 타이어 쉼’은 올해 처음 열리는 국제 전시로 68,000여 m²에 달하는 전시장에 타이어, 휠, 자동차 액세서리 업체 등이 대거 참여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전시회에서 여름, 겨울, 사계절, 콘셉트 타이어 등 4개 카테고리 전시 공간을 구분해 총 14개 타이어를 선보였다. 그중 ‘엔페라 스포츠’와 ‘로디안 AT 4X4’는 ‘더 타이어 쉼’에서 최초 공개했으며, 4월 출시한 ‘원가드 Ice Plus’ 및 ‘원가드 스포츠2 SUV’ 등 겨울용 타이어도 함께 전시했다. 또한 공기 청정 기술을 탑재한 미래 지향적 콘셉트 타이어 ‘브레서(BREATHRE)’ 역시 처음으로 전시했다.

전시 부스는 고유의 브랜드 컬러와 타이어 패턴을 차용한 공간 디자인으로 세련되고 다이내믹한 조형감을 연출했다. 제품 전시 외에도 현재 포르쉐에 공급 중인 ‘엔페라 RU1’ 제품이 장착된 ‘마칸’ 차량 전시 및 넥센 타이어의 공식 파트너인 2017/18 시즌 영국 프리미어리그 챔피언 ‘맨체스터시티’ 구단의 테마로 꾸민 공간도 마련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최근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데아체 모터벨트〉의 사계절용 타이어 성능 테스트에서 1위 평가를 받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NEWS

美 유소년 축구 대회 ‘맨체스터시티 컵’, 2년 연속 후원



넥센타이어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넥센 맨체스터시티 컵’의 타이틀 스폰서이자 공식 파트너로 나섰다.

‘넥센 맨체스터시티 컵’은 2017/18 영국 프리미어리그 챔피언 ‘맨체스터시티’ 구단과 미국의 유명 유소년 축구 이벤트 관리 프로그램 ‘서프 컵 스포츠’가 주관하며, 미국 내 각 지역에서 9세 이하부터 19세 이하까지 각 연령대의 소년·소녀팀이 출전한다.

넥센타이어가 미국에서 큰 규모와 경쟁력을 자랑하는 유소년 축구 대회 ‘맨체스터시티 컵’을 후원하는 것은 올해로 두 번째다. 대회는 미국 샌디에이고 델 마의 ‘서프 컵’ 종합경기장과 오션사이드의 ‘SoCal’ 종합경기장 두 곳에서 펼쳐졌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2015년부터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 구단의 공식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⑩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우리의 가치는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내일의 가치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CREATE TOMORROW'S VALUE





정직함으로 승부하는 타이어테크 만덕점

부산으로 진입하는 두 개의 고속도로가 있다. 그중 하나의 진입로에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은 타이어테크가 있다. 숙련된 기술과 최신형 장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타이어테크 만덕점을 찾았다.

글 김혜진 사진 이명호



김민우 점장: 어서 오세요. 타이어테크 만덕점 김민우 점장입니다. 저희 매장은 2018년 1월 1일에 오픈한 매장입니다.



변민수 과장: 안녕하세요. 변민수 과장입니다. 점장님은 제 스승님이기도 해서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민우 점장: 오픈한 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만덕점의 단골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한번 방문하셨던 분들이 재입차하시거나 소개해주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생 매장인 만큼 탈착기, 헌터 밸런싱기, 헌터 3D 얼라이먼트 등 최신형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것도 저희 매장의 자랑입니다.



변민수 과장: 언제나 방심하지 않고 안전사고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다치면 안 되지만, 차는 고객분들의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차하기 전에 세 번 네 번 확인을 거듭합니다.





김민우 점장: 요즘 고객분들은 싸다
고 무조건 찾아오지 않습니다. 차
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
문에 서비스의 질과 정비 실력, 입소문까지 두루
두루 살핍니다. 요즘은 온라인상에 가격 정보가
오픈되어 있어 과잉 광고로 인한 단기 매출 상승
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쌓아가고자 합니다.



변민수 과장: 요즘 고객님들은
뭉뚱그려서 무슨 차의 어떤 사이
즈로 달라고 하기보다 원하는 모델
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엔페라
AU7의 가격이 얼마냐고 정확하게 짚어서 물어보
세요. 고객들도 진화되어 질문하기 때문에 저희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김민우 점장: 10여 년을 타이어와
자동차 정비 전문가로 일했지만
점점 공부할 것이 많다고 느낀니
다.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경쟁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고객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합니다. 그럴수록 정직하게 고객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우 점장: 블로그나 홈페이지,
지역 카페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응대입니다. 넥센
타이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만큼 매장 자체
의 신뢰도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변민수 과장: 회의 때나 교육 때
마다 점장님과 대표님이 그 점을
강조하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매출을 높이
는 것보다 멀리 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습니다.



김민우 점장: 다행히도 진심은
늘 통하더라고요. 높아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고
객을 맞이하겠습니다! ☺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96
영업시간 09:00~19:00(매일)
문의 051-341-8890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소소한 행복들

넥센인들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발견한 그 순간, 좋아하는 영화, 뽀뽀뽀뽀 적어 내려간 아이의 편지, 언제 읽어도 좋은 나의 인생 책, 가족을 위한 요리, 미래의 나를 위한 영어 공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덕질까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해주는 소소한 듯 소소하지 않은 소중한 것들을 공유해보자.

정리 조병례

고기 ZERO!



성과혁신팀 김소희

동물성 재료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100% 비건 음식입니다.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가 채식이거든요. 얼마 전부터 윤리적 의도로 시작했고, 그 매력에 점점 빠지고 있어요. 아직은 어려움이 많아 완전 채식은 힘들지만 달걀과 우유의 소비 또한 줄여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고기 없는 월요일(Meat Free Monday)'에 한 번쯤 동참해보시는 것 어떠세요?

SF 마니아!



영업전략팀 임영민 대리

문과생도 재밌게 볼 수 있는 평행우주이론의 SF 영화 <소스코드>입니다. 아직 이 영화를 접하지 못한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처음 봤을 때의 그 몰입감과 여운은 강렬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애정을 키워준, 제겐 가장 가치 있는 작품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력과 장면의 구성이 시선을 붙잡고 끝까지 뉘추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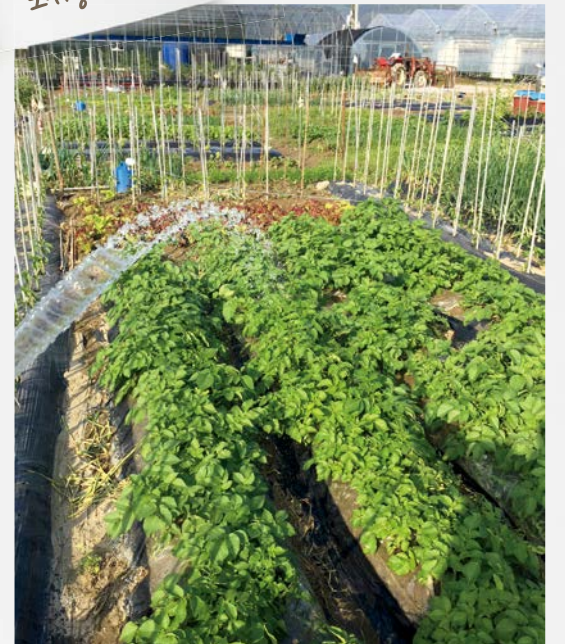
니하호!



개발지원팀 탁세원 주임연구원

8년째 전화통역 자원봉사활동을 지속 중입니다. 중국 문화에 관심이 생겨 시작한 중국어 공부가 재능기부로 이어졌어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중국어 관련 의사소통을 3자 간 전화로 하는 방식입니다. 내 삶이 더욱 가치 있게 느껴져 보람 있습니다. 언어에 관심 많은 사우들도 'BBB코리아'를 검색해 재능기부를 해보시는 건 어떨지요?

도시농사꾼!



내구성능연구팀 이영남

좋은 아빠가 되고픈 마음에 시작한 가족 텃밭이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파종기가 지나면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혼자 밭에 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상추, 고추를 수확합니다. 내가 흘린 땀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만족감과 땅에 대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루를 열심히 보낼 수 있게 충전해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아빠 파워!



(창) 생산기술파트 박정현 대리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것은 바로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너무 사랑해!

명산 정복!



(창) 금형파트 최지웅

제가 가진 가치를 찾는 도전 중입니다. 이름하여 '나를 찾아 떠나는 명산 100'입니다. 지금까지 24좌에 성공했고, 앞으로 남은 산도 안전하고 즐겁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기충전!



선행기술팀 추천철 책임연구원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한 번 더 뒤돌아 보게 해준 영화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입니다. "너 자신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반은 성공할 수 있어", "중압감이 있다는 것은 곧 불을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명대사는 나태함이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멘탈 붕괴 일보 직전이라면 이 영화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별사냥꾼!



선행기술팀 박규현 연구원

취업 후 시작한 취미인 사진으로 소소한 행복을 얻고 있습니다. 5월 어린이날 연휴에 부산 기장에서 생전 처음 찍어본 별 궤적 사진입니다. 밤을 새야 했고 바람이 많이 불어 추웠지만 결과물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로디안즈 스타!



성과혁신팀 황익진 팀장

초등학교 시절부터 야구 광팬입니다. 대구상고 장효조, 김시진 선수가 저의 우상이었지요. 그들처럼 스타가 되고픈 꿈은 오래 전 접었지만 지금 로디안즈팀에서 야구를 할 때면 잊고 지냈던 그 열정이 마구 되살아납니다.

창립기념주간 맞아 글로벌 사회공헌

Part 1

앞으로도 함께할게요!

글 정재한 (문화혁신팀) 사진 이맹호 외 넥센타이어 보도자료



◀ 양산 정화활동



창녕 정화활동 ▶

길거리 청결은 넥센인이 책임진다!

넥센타이어가 창립 76주년을 맞아 국내외 사업장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신뢰와 성원을 보내준 지역사회에 대한 보답이자 넥센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시간이었다. 본사와 공장이 있는 양산에서는 임직원들이 모여 하천 정화활동을 펼쳤다. 지역 마을회관을 방문해 보수활동도 진행했다. 창녕공장에서는 유채꽃 축제가 한창인 남지 유채단지과 남지 체육공원 일대를 정화했다.



▲ 중국 청도 공장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중국 청도공장은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했다.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만두를 빚어 대접하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헌혈활동에 동참했으며, 올해 9월 가동 예정인 유럽 체코공장은 인근 공원을 비롯한 거리 정화 캠페인에 나섰다.



◀ 유럽 체코 공장

함께하는 기쁨 같이누려요!

넥센타이어는 올해부터 사회공헌활동을 해외 사업장으로 확대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법인 '엔젤위더스'를 설립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베이커리를 직접 만들어 공장 근무자에게 공급한다. 이렇듯 넥센타이어는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으로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70여 년의 역사를 만들어온 넥센타이어는 현재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모두 지역사회의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창립기념주년을 지역사회와 함께 즐기는 사회공헌 축제의 장으로 확대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 서울 사무소

Part 2

맛있는 나눔의 기쁨

글 김혜인(문화혁신팀), 사진 권지영(기업문화팀), 김혜인(문화혁신팀)



▲ 서울 사무소 신입사원들



▲ 양산 본사 신입사원들

신입사원의 패기로! 넥센인의 자부심으로!

넥센타이어 2018 상반기 신입사원들이 양산시 노인복지관과 서울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입사원들은 현장에서 자원봉사 기초 교육을 받고 내부 식당 배식봉사를 진행했다. 주변 환경 정화 활동부터 재료 다듬기, 조리, 배식, 뒷정리까지 신입사원들은 지역사회와 나눔의 기쁨을 공유했다. 봉사활동 후 신입사원들은 “값진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㉞



내일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넥센타이어가 만드는 가치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뻗어갑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성실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찬,
넥센타이어의 인재들이 있기에
가치 있는 또 다른 내일이 시작됩니다.

CREATE TOMORROW'S VALUE

세계 곳곳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우리

넥센타이어 글로벌 히어로즈

글 김희진(문화혁신팀) 사진 박시홍



지난봄 넥센타이어는 창립 76주년을 맞아 해외 각국에서 근무하는 현지 채용인(이하 '현채인') 우수 직원 30명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본사 방문을 통해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더불어 본사에 대한 이해 및 업무 능력 향상까지 도모했다. 양산 본사를 시작으로 창녕공장, 대구 PG 방문 및 서울 투어로 이어진 일정이 4박 5일 동안 진행됐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은 양산 본사 창립기념일 행사 참석이었다. 이날은 특별히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창립기념일 행사가 진행됐다. 강호찬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들은 후, 현재인들은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본사 직원들의 기분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다.

창녕으로 이동한 현재인들은 창녕공장의 소개 영상을 감상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공장의 깨끗함과 자동화에 놀란 현재인들은 연이어 감탄사를 내뿜었다.

특히 중국 청도공장에서 온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계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이어 대구 PG로 이동해 차 시승을 해보며 짜릿함을 만끽했다. 많은 동료들의 환영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경험이었다.



현재인들은 서울로 이동해 일정을 이어갔다. DMZ, 경복궁, 남산타워 등을 관광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총 9개 국가에서 온 30명의 현재인이 교류를 이어간 열정 가득하고 특별한 날들이었다.

넥센인이라는 단 하나의 공통점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소중한 인연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였다. 비록 4박 5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재인들이 자국에 돌아가 이번 일정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길 바란다. 그와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넥센인들이 이뤄낸 성과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뤄나갈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㉞

새로운 시대의 변화 속에서 가치를 높이다

2018 넥센타이어 인재 육성 체계

글/사진 임광현 과정(인재개발팀)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맹자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의 이사를 했다는 뜻이다. 이 고사성어의 핵심은 맹모(孟母)가 맹자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 역사에 길이 남을 거인(巨人)으로서 가치를 드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개인 및 조직이 경쟁력을 갖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결국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사람들의 집합체이며, 각각의 사람들의 역량과 경쟁력이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넥센타이어는 개인과 조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 인재 육성에 힘써왔다. 맹모가 맹자를 위해 세 번의 이사를 하며 능동적으로 변화를 이룬 것처럼, 현재 넥센타이어 또한 마곡 시대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글로벌 조직으로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의 시점에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 정보의 향상을 위해 타이어 대학을 계획했다. 또한 인재 육성 체계의 재수립을 위해 기존의 직무별 교육도 통합했다.

2018년에는 우선적으로 직무를 통합한 교육 과정(직무아카데미)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타이어 대학의 완성과 직무 및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업을 통한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역량 개발과, 나이가 자발적 학습 문화를 구축하는 그 장대한 서막을 시작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변화는 임직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비전 달성의 힘을 만들고 더불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하는 발판을 만들 것이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통해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 하는 넥센타이어가 될 것이다. **N**



변화의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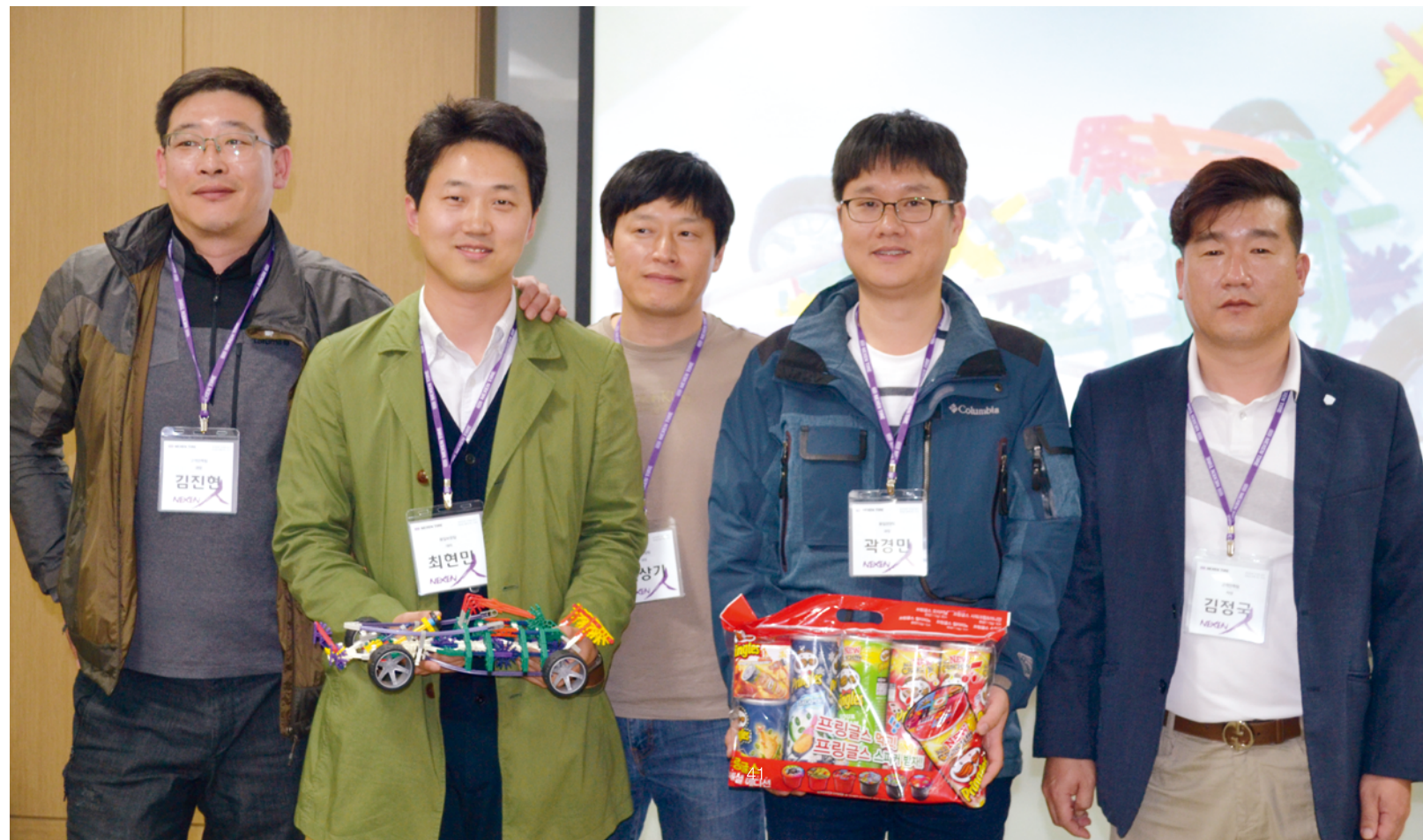
첫 번째가 바로 NEXEN UNIVERSE를 통한 '한 방향의 일체감 강화'다. 단기적 성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전 글로벌 조직을 아우르고 한 방향의 일체감 강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인재 육성 체계를 운영하고자 한다. 한 방향의 일체감이란 각 집안 역사와 가치가 하나 된 가풍처럼 조직의 경영 철학과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영 철학과 핵심 가치를 'NEXEN UNIVERSE'라고 명명했다. NEXEN UNIVERSE의 프레임 안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함께하는 조직으로 일체감을 이루어나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강한 리더'다.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사람이기에 조직원들의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어낼 것인가의 핵심이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리더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에게 비전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내재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15년 이후 3년 만에 리더십 과정을 부활시켜 리더의 역량과 자질 향상을 꾀했다. 지난 5월 리더십 과정에서는 한 방향의 일체감 강화를 위한 NEXEN UNIVERSE에 대한 내용을 전사 임원과 팀장들에게 우선적으로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는 '전문가 양성'이다. 우리 회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조직이다. 그러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양한 지식, 기술, 정보가 하나로 축적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문가 육성과 우리만의 지식,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힘, 자존감

내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질 수 있잖아!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29위, 꼴찌에서 7번째다. 2017년 기준 GDP 순위 세계 11위, 수출 순위로는 세계 7위라는 나라의 국민이 맞는가? 맞다. 누가 뭐래든 나만은 절대 행복하다 믿는다. 무슨 자신감이냐고? 자존감이다!

글 최승영(한국코치협회 공식인증 코치,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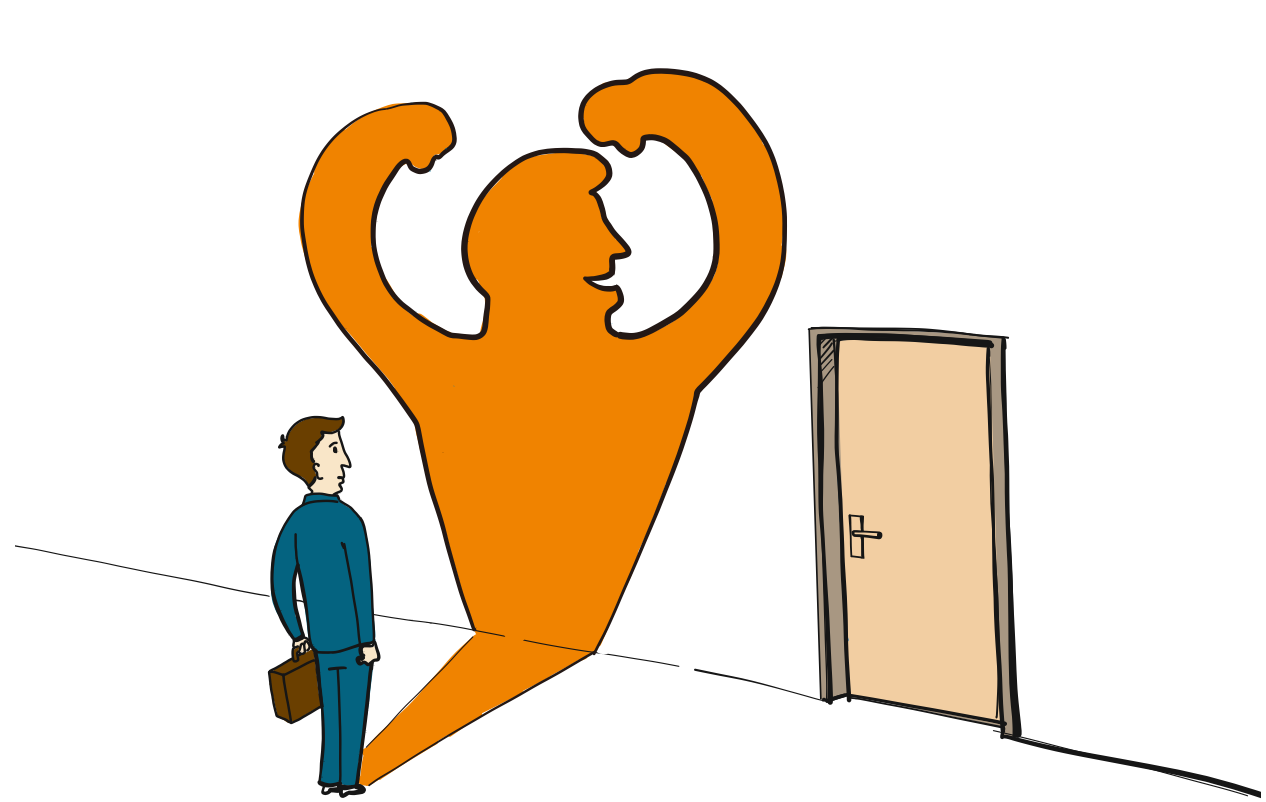
자존감이 낮으면 결정조차 쉽지 않다

‘10개가 너무 힘드네요.’ 통화로 얘기할 만도 한데, 카톡으로 왔다. 일 때문에 만난 분이 있다. 덩치는 산만 한데 말이 없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수가 적은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결정을 못 한다. 일이 고 뭐고 일단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친하게 수다도 떨고 책도 선물하다 마침내 저녁 술자리를 잡았다. 석 달 반이 걸렸다.

술이 조금 들어가자 마침내 입을 열었다. 대충 이렇다. 소위 명문대 입학 후 졸업과 동시에 입사와 결혼을 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내와 외국에 있어 그는 혼자 살고 있다. 공부라면 자신 있는데, 사회생활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 그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자기보다 어린 여성 부장이 상사인데, 자존심도 상하지만 자꾸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말수도 줄고, 대인관계도 자꾸 좁아진다고 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장점을 단문으로 10개 써서 보내라고 했다. 일주일 이 지나도 답이 없어 슬쩍 물었더니 곧 보낸다며 열흘 만에 7개가 왔다. 그분이 적은 내용은 이렇다. ‘나는 부장님보다 파워포인트를 잘한다’, ‘나는 등산을 잘한다’, ‘나는 아들에게 좋은 아빠다’...

단문으로 쓰는 게 뭐가 어려운가 싶겠지만, 코칭이나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많은 경우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단문으로 자신의 장점 쓰기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자존감, 나를 믿고 나를 세우는 힘

자존감(self-esteem)이란 단어는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가 1890년대에 처음 사용했다. 자존감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쉽게 말해 '나를 세우는 힘'이다. 경기대학교 허남철 교수(전 SK네트웍 오엔에스 대표)는 자존감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한다. '무시'를 받거나 '상처'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씨앗처럼 기억에 남아 있다. 이게 발전하면 '수치심, 모욕감, 모멸감'으로 나타난다. 누군가 어깨를 툭 치면 평소에는 관심의 표시로 느끼지만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는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맞은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 부정적 감정은 '열등감'으로 발전한다. 사춘기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다. 생각의 기준이 내가 아닌 남이 되는 것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열등감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자괴감'으로 발전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임에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다. 힘든 상황이 되면 극복하려는 의지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는다면 '자긍심'으로 발전한다. '자긍심'은 용기를 얻고 무언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신감'으로 발전한다. 자신감은 도전에 이어 성취를 만드는 '자부심'으로 발전한다.

자존감을 높이는 쉬운 방법 2가지

자존감 메커니즘은 상처를 주거나 받으면 안 되는 이유와 개개인이 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 방법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긍정적 발전, 즉 자존감을 높이는 아주 쉽지만 강력한 방법이 있다. 바로 경청이다. 누구나 경청하고 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게 경청이다. 배우자 경청(Spouse Listening)이라는 게 있다. 코칭 스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경청이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도 경청을 못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어만 듣는 것은 메시지 영향도가 고작 7%다. 내가 몰입해 경청하면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되며 나를 찾게 된다. 존중받는 느낌, 내게 기대고 싶은 상대방의 마음이 상대는 물론 나 자신에게도 고스란히 자존감으로 전해진다. 그 다음은 멘토를 만드는 것이다. 자주 못 만난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기준이 스스로에게 힘이 된다. 조언자도 큰 몫을 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조언자는 나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큰 조력자가 된다. 우울하거나 의기소침해질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단박에 올리는 방법도 있다.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Amy Joy Casselberry Cuddy)는 원더우먼과 같은 자세로 2분만 있어도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어깨너비로 발을 벌리고 허리를 편 채 두 손을 양 허리에 얹는 자세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뿐인 삶, 멋지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1월 알바천국에서 10~20대 회원 1,648명을 대상으로 자존감을 조사했다. 자존감이 높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7.4%에 불과했다. 개성이 강하고 취향이 분명한 이들이라 리서치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살펴보면 당연하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그런데 막상 통제 불가능한 상황, 취업의 문턱에서 막히다 보니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계속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할 상황에서는 결정을 못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장점 10개 쓰기'를 어려워했던 그분은 현재 타 회사로 스카우트되어 진취적 리더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 즉 자존감은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하나뿐인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㉞





셰프 정지선

평범한 재료에서 새로움을 창조하다

‘중식(中食)계의 여전사’, ‘카리스마 여장부’와 같이 정지선 셰프 앞에는 언제나 강한 수식어가 붙는다. 거친 느낌의 중식과 잘 어울려 마음에 쏙 든다는 그녀다. 매일 아침 칼끝에서 창조되는 그녀의 여정, 그 끝은 알 수 없다.

글 김지혜 사진 이맹호

중식계에 바람을 일으키다

쏘울푸드 코리아 아시아·중식 요리 강사에서 롯데네슬레 코리아 요리연구 협력 셰프로, 그리고 최근엔 ‘중화복춘’의 오너셰프가 된 정지선 셰프는 17년 경력을 쌓은 탄탄한 실력의 소유자다. 이미 중식계에서는 이연복 셰프 수제자로 실력이 정평이 나있었지만 아직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셰프였다. 하지만 최근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이후 언론사의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에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정도다.

중화복춘을 오픈한 지 7개월, 어느새 이곳은 SNS에서 4,000여 개의 태그가 추가된 핫한 중식당이 되었다. 매장 안은 물론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여다보게 하는 오픈 주방은 중화복춘만의 매력이다.

“중화복춘은 정통 중국의 맛을 재현하고 그 맛을 더 부각시키는 곳이에요. 특별한 점이라면 예쁜 중식, 섬세한 중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방을 오픈해 손님들에게 위생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신뢰감을 주려고 해요. 중식의 편견 중 하나가 시끄럽고 지저분하다는 건데, 뜨거운 열기와 시끄러운 주방이 아닌 음식을 맛보기 전에 눈과 귀를 먼저 즐겁게 하는 거죠.”

정지선 셰프의 경영 철학 중 하나는 건문을 넓히는 것이다. 중화복춘 가족들은 1년에 두 번 여행을 간다. 주방으로부터의 해방이자 또 다른 세계 여행인 셈이다. 깊이 있고 방대한 중식의 세계를 직접 보라고 정지선 셰프는 늘 후배들에게 강조한다.

“예전에는 국내 여러 식당에서 일하면서 배웠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제는 기회가 있으면 해외에 나가서 더 음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시야가 트이고 다양한 요리에 도전할 수 있어요. 요리 대회도 나가라고 적극 장려하고 있어요. 요리 작품 안에 스토리를 짜고 식재료와 요리법을 연구함으로써 공부가 되거든요. 요리 대회가 끝나면 자신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저도 그랬고, 후배들도 성장하길 바랍니다.”

無에서 有 창조

요리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 중 하나는 주어진 공간 안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마음껏 ‘창조’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요리의 창조와 표현을 위해서는 예술적인 감각과 지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 없이도 셰프로 불릴 수는 있지만, 정해진 레시피를 따라 정해진 요리를 할 뿐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노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 누구도 12시간 동안 뜨거운 주방에서 서서 일하고자 셰프라는 직업을 선택하진 않았을 것이다.

“요리를 시작한 후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한국에서 나오는 책은 한계가 있어서 중국에서 책을 많이 사왔어요. 중국 유학 당시 스크랩해놓은 요리도 펼쳐보고요. 중국 검색 사이트 바이두(百度)에서도 많이 보고 있어요. 중식이 아닌 다른 셰프가 하는 요리를 많이 보고 연구하는 편이에요. 플레이팅이나 식재료 활용법 등을 연구하고 요리에 하나씩 접목시켜보지요. 새로운 요리를 창조하기 위해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노력이에요.”

하나의 중국요리를 만들려면 수십 번의 칼질을 해야 하고, 매번 불꽃을 튀겨가며 무거운 wok을 돌려야 한다. 중식 특유의 불향을 내기 위해 고온을 다루다 보니 조금만 방심해도 다치기 일쑤다. 그런데도 정지선 셰프는 이곳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 하고 싶은 요리를 할 수 있어 그녀에겐 하루하루가 즐겁다.



펼쳐지지 않은 맛의 세계

정지선 셰프는 지난해 오랜 꿈이었던 <차이나는 요리> 출간에 이어 올해 <딤섬의 여왕> 두 권의 책을 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녀의 영역은 훗날 ‘딤섬’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한국에서 ‘만두’라고 부르는 형태의 음식이 딤섬에 많긴 하지만, 만두뿐 아니라 각종 중국식 물과 떡, 닭발 요리, 국수, 죽 등도 포함된다. 때문에 딤섬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나중에 냉채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딤섬집을 하고 싶어요. 요즘 휘귀나 양꼬치 등 중식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서 나중에 딤섬 가게를 냈을 때 거부감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본토의 맛 그대로를 원하는 사람도 많아 더더욱 자신이 생깁니다.”

더욱 많은 경험과 노력을 쌓아 진정한 셰프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요리를 만들고 싶다는 정지선 셰프. 그녀의 창조적인 요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㉞



넥센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여름휴가는?

2018. 05. 09~05. 11, 총 259명 참여

어느새 올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1년에 단 한 번, 생각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가는 뭐니 뭐니 해도 계획할 때 가장 즐거우니까요. 행복회로를 돌려볼까요? 넥센인들이 꿈꾸는 최고의 여름휴가는 어떤 것인가요?

정리 김혜진

Q 올여름 떠나고 싶은 여름휴가지는 어디 인가요?

여름에는 무조건 바다!	50명	20.32%
이국적인 풍경이 최고! 해외로 간다	116명	47.15%
쇼핑과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도시	15명	6.10%
집 떠나면 고생! 에어컨과 함께 집에서	27명	10.98%
기타	38명	15.45%

- 호캉스!! 호텔에서 에어컨 바람 씹며 맛있는 거 먹는 게 최고예요.
• 송민화
- 최종 목적지만 정해놓고, 국도를 이용해 최대한 천천히 이동하는 것.
계획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했을 때의 기분은 최고입니다.
• 김기호
- 체코!! 기술지원단 파견!!! 일도 열심히!!! 풍경도 열심히!!! • 탁세원

Q 여름휴가 비용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1인당 지출은 얼마인가요?

20만 원 미만	21명	9.13%
20만~40만 원	71명	30.87%
40만~70만 원	75명	32.61%
70만~100만 원	35명	15.22%
100만 원 이상	28명	12.17%

Q 최고의 여름휴가 동반자는 누구인가요?

가족과 다 함께!	105명	40.54%
부부끼리, 연인끼리 둘만 간다	79명	30.50%
친구끼리 우정여행	48명	18.53%
인생은 독고다이! 혼자 간다	24명	9.27%
기타	3명	1.16%

- 본가 어른 하루, 처가 어른 하루씩 봉사합니다. • 천경우
- 누구든지 마음 맞는 사람이라면 OK.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라면 OK. • 신통규

Q 꿈꾸는 여행 스타일은 어떤 건가요?

여행은 식도락이 진리	105명	43.61%
아무것도 하지 않는 100% 휴식	59명	22.18%
트레킹, 스킨스쿠버 등 레포츠	77명	28.95%
기타	14명	5.26%

- 방문하는 여행지의 역사와 사건에 대해 미리 공부해서, 마치 그 역사
속에 함께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 임영민
- 사하라 사막에서 별 보기, 노르웨이 북단에서 오로라 보기, 그랜드캐
니언에서 캠핑, 남극 여행 등 • 장우영
- 더운데 내리기도 귀찮죠, 드라이브! • 조원준

Q '여름휴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 겨울휴가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 이원근
- 역설적으로 시원함을 찾는 것만이 여름휴가라고 할 수는 없죠.
오히려 격렬한 운동으로 땀을 방출하고 난 뒤의 샤워는 최고의
청량감을 맛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천경우
- 어디론가 떠날 생각만으로도 설레는, 기분 좋은 휴식기! • 조미오
- 업무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좋아요. 집 앞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한잔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휴식이라 생각합니다. 어딘가 떠나는 것만 휴식이
아니라 마음의 휴식도 좋은 것 같아요. • 김규명
- 넥센타이어 식구들 즐거운 여름휴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 박정현

Q 여름휴가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가벼운 지갑	118명	48.56%
같이 휴가를 떠날 사람이 없는 것	13명	5.35%
저질 체력	27명	11.11%
기타	85명	34.98%

- 가족 구성원들의 휴가 스케줄 맞추기가 힘들어요. (학교, 학원, 일 등)
• 박기홍
- 원가를 해야한다는 무언의 압박감! • 김병갑



당신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유머의 기술

유머는 때와 장소, 맺고 끊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관건은 공감대 형성에 유용한 유머와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유머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글 우용표(더 코칭 & 컴퍼니 대표)

“힘들 때 우는 것은 삼류, 참는 것은 이류, 웃는 것은 일류다.” SBS TV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상민이 해서 더 유명해진 말이다. 실제로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생활하면서 부담이 컸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직장 생활은 대부분 지루하다.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이것저것 배우고 익히느라 지루할 틈이 없지만 어느 정도 업무가 손에 익으면 매일이 똑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직장 업무는 크게 보면 목표와 실행의 반복 아니겠는가.

유머는 딱딱한 직장 생활에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한다. 무거운 회의 분위기가 한마디의 가벼운 유머로 부드러워지고 의견 교환이 더욱 활발해지기도 한다. 단 좋은 유머여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죽자고 달려들게 만드는 유머’가 될 수 있다. 좋은 유머와 나쁜 유머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웃음의 9가지 효과

01 수명 연장

하루에 15초씩 크게 웃으면 엔도르핀과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수명이 2일 늘어난다.

02 면역력 증진

5분간 웃으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정상 세포의 활성화 시간이 5시간 늘어난다.

03 다이어트

웃음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편이다. 3분 동안 웃으면 11kcal가 소모되고, 3분 동안 전력질주하면 18kcal가 소모된다.

04 소화 기능 향상

웃는 동안에는 복부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장의 연동운동이 잘돼 소화 기능이 향상된다.

05 우울증 감소

뇌신경 전달 물질은 웃을 때 분비가 늘어나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준다. 그중 세로토닌, 도파민은 불안, 초조, 우울 같은 감정을 줄여들게 해 우울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

06 폐활량 증가

크게 웃으면 저절로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기 때문에 폐활량이 늘어난다.

07 통증 경감

웃을 때 분비가 늘어나는 엔도르핀, 엔케팔린은 통증 경감에 도움을 준다.

08 심혈관계 개선

웃으면 혈액 순환이 잘되어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 혈압이 낮아진다.

09 근육 운동 활성화

웃음은 우리 몸의 650개 근육 중 231개 근육을 움직이게 한다.

* 출처: 헬스조선 포스트



좋은유머

자신을 낮추는 유머가 좋은 유머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유머가 좋은 유머다. 미국 링컨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는 도중 그의 정치 라이벌이 링컨을 향해 “당신은 두 얼굴을 지닌 사람”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갑자기 장내가 조용해졌는데, 이때 링컨은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못생긴 얼굴로 나왔겠소?”라고 받아쳤다. 왜 인신공격을 하느냐며 정색하는 것보다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유머이기도 하다.

국민 MC 유재석 역시 항상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준다. 호통 개그를 구사하는 박명수에 게 항상 당한다. 그 과정에서 웃음을 준다. 다른 출연자들이 소외된다 싶으면 관심받을 수 있도록 출연자에게 집중한다. 본인 스스로 큰 웃음을 줄 수 있지만 웃음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돌림으로써 프로그램을 더욱 재미있게 해준다. 그가 항상 1인자일 수 있는 이유다.

필자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 영업팀 소속이었을 때 다음 해 사업계획 회의 과정에서 중국 수출 팀에 좀 무리하게 계획이 배당되고 있었다. 이때 중국팀장은 “저희가 만만합니까? 왜 저희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라고 항의하지 않았다. “다른 팀에 팔리지 말라고 저희 중국팀의 사기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좀 줄여주셔도 충분히 사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약간의 유머를 섞어 의견을 개진했고, 중국팀장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유머는 상대방이 나보다 우월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좋다. 바보가 개그와 유머 소재로 많이 활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수한 경우 “나 바보인가 봐” 하고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해보자. “그걸 지금 알았어?”라고 면박을 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함께 웃으며 “뭐 이런 걸 가지고”라며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웃어주는 것도 좋은 유머

누군가 용기 내어 우스갯소리를 하거나 유머를 던졌는데 굳은 얼굴로 정색을 하며 “진짜 그렇게 생각해?”라고 한다면 갑분싸(갑자기 분위기 싸해짐) 상황이 된다. 상대방의 유머에 대해 웃어주는 것 역시 좋은 유머가 된다.

유머를 꺼내놓는 것도 용기를 필요로 한다. 재미없으면 어찌지? 나를 우습게 보면 어찌지? 하는 순간적인 걱정을 이겨내고 어렵게 꺼내야 하기 때문이다.

아재 개그가 재미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다. 무조건 부하 직원들이 웃어주니 정말 자신이 재미있고 유머 넘치는 사람이라 착각하게 된다. 재미없는 아재 개그에도 웃어주도록 하자. ‘이렇게 재미없는 유머에도 웃어야 하나? 직장 생활 힘들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점을 바꿔보자. 직장 선배 혹은 상사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유머가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 방법은 엄근진(엄격+근엄+진지)

이라는 채찍이다. 가볍게 웃어넘기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거운 얼굴로 경고성 발언을 하게 될 테니 말이다. 볼품없는 아재 개그라 해도 웃어주도록 하자. 웃는 게 싫으면 미소라도 보이자. 채찍보다는 실없는 농담에 웃어주는 게 좀 더 쉬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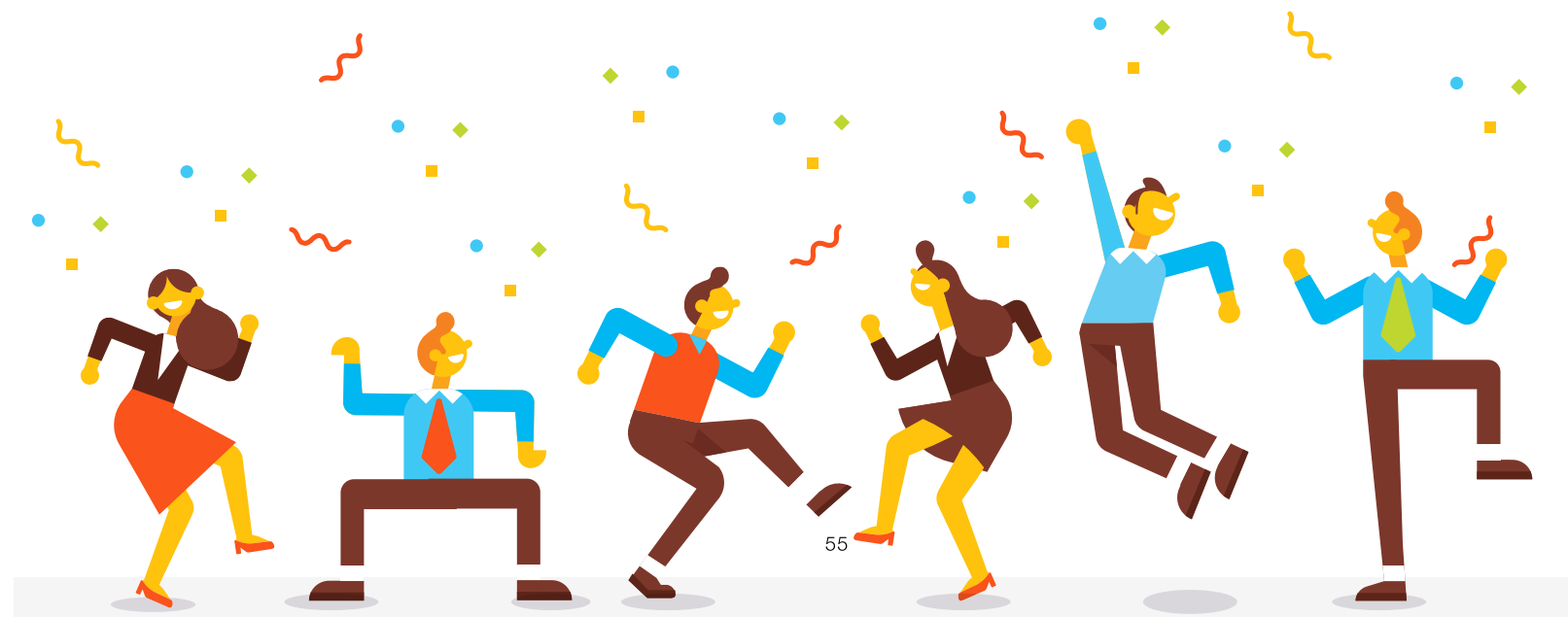
나쁜유머

성(性)적인 유머

유머는 좋은 것이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유머가 있으니, 바로 성(性)과 사생활이다. 술자리에서 가볍게 농담한답시고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장 고소감이다. 지각한 후배에게 “어제 뭐 했어? 좋았어?”라는 농담을 던지는 부서장은 최악이다. 본인은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농담이다. 가해자는 항상 “그럴 의도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비판과 처벌이 따른다. 유머 한 번 잘못 던졌다가 인생까지 던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자.

외모·신체 조건을 대상으로 하는 유머

“넌 보기만 해도 밥맛이 떨어져서 다이어트가 된다” 이런 식의 유머는 곤란하다. 외모를 소재로 농담을 던지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 놀림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화내자니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인정하는 것 같아 불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쾌함은 언젠가 보복으로 다가온다. ‘그때 나 못생겼다고 놀렸지? 한번 당해봐라’라며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다. 상대방이 가진 약점을 건드리는 것은 웃어넘길 수 없는 일이다. ㉞





NEW PLM TFT 육남석 팀장 가족

행복이 3배? 아니 3만 배! 다둥이가족의 부산너들이

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5월의 어느 날, 부산 기장 바닷가 앞에 위치한 오감만족 체험장에서 NEW PLM TFT 육남석 팀장의 가족과 만났다. 쫄쫄한 날씨가 무색하게 보는 이들의 기분마저 뽕뽕송송하게 만드는 세 아이의 햇살 같은 미소를 <헬로우 넥센>이 담아왔다.

글 김혜진 사진 서봉섭

최우선은 늘 가족!

육남석 팀장은 바쁘다. 최근 전사에서 사용할 PLM(Product Life cicle Management) 시스템을 만드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며 더욱 바빠졌다. <헬로우 넥센>과 만난 날도 출장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날이었기에 피곤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촬영팀이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이미 3D 모래 체험 삼매경. 11살, 7살 예술이와 이슬이는 엄마 소현 씨의 아무진 손길이 느껴지는 귀여운 커플 뽀뽀 머리를 한 채 신나게 모래 놀이를 하고, 막내 5살 휘슬이는 그저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에 바쁘다. 육 팀장의 얼굴에도 피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웃음이 가득하다. “요즘 바빠서 잘 못 놀아줬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아내 소현 씨도 기분이 좋기는 마찬가지. 남편의 출장 기간에 세 아이의 독박육아가 힘들지 않았냐고 물으니 “물론 그렇지만, 평소에는 잘 도와주는 남편”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 다둥이 아빠가 된 웃음 넘치는 가족의 비결이다.





서로에게 배워가는 아이들

오감 체험이 11살에게는 싱겁지 않을까 했던 엄마 아빠의 걱정과 달리 첫째 예술이가 제일 신이 났다. “학교 안 가고 체험학습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역시 어른이나 아이나 ‘뽕뽕이’는 즐거운 법. 온 가족이 함께하는 짜릿한 일탈에 초등학교 예술이는 어깨춤이 절로 나온다. 체험학습장 ‘솔소리 플레이스’에서는 기본 프로그램 외에 시계, 액자, 인형 등을 아이들이 직접 색칠해서 만들어볼 수 있다. “나는 꿀벌 시계!” 예술이가 말하니 “나도 꿀벌 시계요!” 둘째 이슬이도 따라 말한다. “나도 누나들이랑 똑같은 거 할래!” 막내 휘슬이도 손을 번쩍 든다.

세 아이가 나란히 앉아 나름대로의 예술혼을 불태우는 모습이 사뭇 귀엽다. 같은 아이템을 선정했지만 그리는 스타일은 가지각색. 육 팀장과 소현 씨는 “벌써 애들이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겼다”며 웃는다. “누가 제일 잘하는지 볼까?” 삼 남매에게 마법 같은 문장이다. 마법의 문장을 들으면 삼 남매의 눈이 반짝하고 빛나며 의욕을 불태운다. “누나 거 멋있어!” 진심 어린 존경을 보내기도 하고, 경쟁심으로 귀가 빨개지기도 하지만, 이내 함께 웃는 예술, 이슬,



휘슬이. 언니에게, 누나에게, 동생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닮아간다. 함께 자라는 세 아이에게 서로의 존재는 이미 선물이다.

결혼 10주년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육남석 팀장과 이소현 씨는 벅센타이어 사내 커플이었다. 연구원이던 육남석 사원과 행정직이던 이소현 사원이 만나 어느새 결혼 10주년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부부는 사원에서 팀장으로, 세 아이의 엄마로 성장했다. 내내 사이가 좋은 육 팀장 부부가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라는 말에 ‘옛말’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지는 기분.

아내 소현 씨는 이런 가족사진이 찍고 싶었다며 “결혼 10주년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웃는다.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아이들은 사진은 나 몰라라 신나게 놀고 싶을 법도 한데, 누구 하나 찍기 싫다는 말 한마디 없이 환한 웃음으로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보낸다.

10년의 세월을 행복으로 꽉 채워준 삼 남매의 싱그러운 미소가 육남석 팀장, 이소현 씨 부부에게는 무엇보다 아름다운 선물이다. ㉞



창녕공장 성형파트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타이어 공정의 심장부

성형파트는 타이어 공정의 심장부라고도 불린다. 타이어의 구성 요소들을 결합해 타이어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시스템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성형파트를 <헬로우 넥센>이 만났다.

글 김혜진 사진 이맹호

유독 녹음이 푸르게 느껴지던 5월의 어느 날,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탁 트인 창녕공장 잔디 위에 성형파트 조원들이 모였다. 조현철 파트장의 지휘 아래 입사 연차도, 나이도 다양한 넥센인들이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하며 훌륭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인지 물었다.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는 자부심으로

준비파트에서 반제품 공정을 거쳐 완성된, 타이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줄지어 성형기 앞에 도착한다. 성형파트에서는 반제품 유닛들을 순차적으로 조립하여 타이어의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관장한다. 성형파트 팀원들은 셋업, 오퍼레이터, 헬퍼 등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신중을 기한다.

“준비파트에서 반제품이 잘 만들어졌더라도 잘못 조립하면 불량일 수 있기 때문에 늘 신중을 기합니다. 저희 성형파트는 ‘세계 최고의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일류 타이어’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것. 진대원 대리의 말에 여기저기서 감탄이 튀어나온다. 들고 있던 박형찬 직장이 “직장님의 훌륭한 가르침 덕분이라고 해야지!”라며 말을 보태니 다들 웃음이 터진다.





기본을 잘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는 탄탄한 팀워크

팀원들의 분위기가 좋다는 말에 류신욱 조장은 “자유로운 분위기는 오히려 원리원칙을 잘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 다”고 말했다. 성형파트의 팀워크를 유지하는 비결은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라며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조현철 파트장은 팀원들에게 기본 중요성을 늘 강조하면서 기본 중의 기본으로 ‘인사’를 꼽는다고 한다.

“신입사원부터 입사 5~6년 차, 그리고 30년 이상 된 팀원들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일하니까요.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해주는 것과 별개로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네라고 말합니다. 식사할 수도 있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팀워크를 다지는 비결에 대해 물으니 김환동 조원은 ‘함께 땀 흘리는 것’이라며 웃는다.

“삼삼오오 모여서 운동도 자주 하고, 또 성형파트만의 볼링 대회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우승을 놓고, 입사 연차와 상관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치열한 경기를 치르고 나면 업무 스트레스도 풀리고 팀워크도 좋아집니다.”

조현철 파트장을 비롯해서 공광준 직장과 박형찬 직장은 나이 어린 조원들이 늘 신경 쓰인다.

“외지에서 와서 혼자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늘 걱정됩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서로를 보듬는 성형파트 조원들. 서로가 서로의 가장 든든한 원동력이다. ㉞

♡ 성형파트의 ‘내 마음을 들어봐’ ♡



김영일 조원

류 조장님은 따뜻한 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웃는 얼굴로 해주시니 늘 감사합니다.

공 직장님은 저 입사했을 때부터 교육을 담당해주셨던 분이자, 저의 롤모델이십니다! 언제나 존경합니다. 직장님!



조수봉 조원

일할 때는 꼼꼼하신데, 평소에는 화통하고 재미있어서 함께 있으면 항상 즐겁습니다.

모든 일에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조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원칙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환동 조원

형님들에게는 깍듯하고 동생들에게는 따뜻한 분입니다. 힘들 때 소주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조원입니다.

저희 성형파트를 이끌어주시느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소한 것까지 조원들을 살펴봐주시고 언제나 뒤를 든든하게 봐주십니다.



진대원 대리

얼마 전에 결혼한 새 신랑입니다. 얼굴도 잘생겼는데 항상 웃고 성실하기까지 하니 최고죠?

마음이 넓고 성실합니다. 진 대리가 화를 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니까요. 진 대리, 제 업무를 보조해주느라 늘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신욱 조장



공광준 직장



박형찬 직장



조현철 파트장



서울사무소 3인의 실내 서핑 체험기

파도에 몸을 맡기다

색다른 도전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넘어지고 부딪혀도 짜릿한 기분은 통증마저 잊게 한다. 사우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이색 체험을 응원하는 '플레이 투게더'를 통해 한 뼘 더 성장해보자. 여름 스포츠라면 무엇이든 좋아한다는 서울사무소 세 사우가 실내 서핑장에서 파도와 마주했다. 매번 시행착오를 겪고 파도에 무너졌지만, 이 정도쯤이야!

글 조병례 사진 이맹호



베스트 서퍼는 나야 나!

아태팀 김동현 사원, 중아팀 김재현 사원과 인재개발팀 이도연 사원이 일산의 한 실내 서핑장에 모였다. 서로의 말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렁찬 인공 파도 소리가 서핑장을 메우고 있었다.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의 서핑보드, 젖어 있는 슈트들, 시원한 복장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사계절 내내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이곳의 특별한 분위기를 말해주는 듯했다.

단추나 지퍼가 있는 옷을 입고 서핑할 경우 부상 위험이 있어 반드시 수영복이나 서핑 슈트를 착용해야 한다. 세 사람도 서핑장에 마련된 슈트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들어갔다. 김동현 사우는 슈트가 아닌 편안한 반바지와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 맞는 사이즈의 슈트가 없다며 멋쩍게 웃었다.

얼굴에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하는 세 사람과 기념 촬영부터 했다.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각오를 다진 덕분인지 다들 표정이 다부지다. 사우끼리 서울사무소를 벗어나 체험을 앞두고 있으니 편안한 포즈도 자유자재로 나온다.

차례를 기다리면서 다른 서퍼들을 진지한 눈빛으로 관찰했다. 파도에 뛰어 들기 직전인 초보자부터 거친 물살과 한 몸인 듯 여유로운 서퍼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조금만 연습해보면 잘할 수 있겠어요, 설레요”라며 세 사람이 입을 모았다.

본격 체험 전 특별히 사전 강의를 받기로 했다. 간단한 안전 수칙과 서핑을 즐길 때 주의해야 할 점에 귀 기울였다. 강사를 따라 보드 위에서 다리를 굽히고 중심 잡는 동작을 취해본다. 익숙하지 않은 자세라 엉거주춤한 모양새지만 세 사람 모두 눈빛만은 이미 프로 서퍼다.



몸과 머리가 따로 놀아요

순서를 지켜 대기하다 차례가 오면 한 명씩 보드에 올랐다. 파도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균형 잡기’다. 몸의 중심을 단단히 하고 허리를 세운 뒤 팔은 쪽 뻗어야 한다. 시작은 강사의 도움을 받아 균형을 유지한 채 파도 위 보드에 서서 버티는 것이다. 손을 잡고 있던 강사가 더 센 파도를 향해 한 발로 천천히 보드를 밀어낸다. 자세를 유지하고 파도의 흐름을 느끼면서 슬그머니 손을 놓으면 어느새 물살 위에 혼자 힘으로 떠 있다. 그 찰나에 균형을 잃으면 보드에서 떨어져 세찬 파도에 멀리 밀려나는 건 순식간이다.

흠뻑 젖은 채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던 김재현 사우가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재미있어요. 배운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중심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래도 셋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죠? 도연 씨, 동현 씨 내가 하는 것 잘 보고 따라 해!”

세 번째 서핑을 시도하고 난 이도연 사우는 “균형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서핑보드가 파도를 따라 자연스럽게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앞서 나가려 하더라고요. 끝나기 전까지 꼭 성공하겠습니다!”

파도에 들어서기 직전까지 강사의 이야기에 집중하던 김동현 사우. “오늘이 두 번째 체험이라 잘할 거라 생각했어요. 오랜만이라 그런지 파도에 몸 맡기기가 잘 안 되네요. 하체를 잘 지탱해야 하는데 자꾸 넘어져요. 강사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하.”

몇 번의 차례가 지나가고 한 시간이 훌쩍 흘렀다. 머리로 이해한 이론과 달리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세 사람은 계속 웃으며 파도에 맞섰다. 결국은 또 중심을 잃고 파도가 떠미는 대로 흘러가 사우들 옆으로 모여들었다. 파도 위에서 버틴 시간이 몇 초에 불과해도 오늘 체험이 셋 모두에게 재밌는 기억으로 남을 것임은 틀림없다. ㉞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칭찬합시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칭찬은 받는 사람뿐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전하지 못하고 아껴두었던 칭찬과 격려를 동료들에게 건네보세요. <헬로우 넥센>이 대신 전해드릴게요.

정리 김지혜



ICT전략팀 최성호 과장에게

우리가 알게 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그래서인지 아직 과장님이란 호칭보다 선배라는 단어가 더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인연을 만나는데, 넥센타이어가 아닌 곳에서 처음 만났다가 지금은 넥센타이어에서 함께 근무할 수 있다는 건 보통 인연이 아니겠죠? 작년에 극심한 개인 슬럼프로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지켜봐주셨고, 다시 복귀할 수 있게 큰 힘을 주셔서 저에게는 망망대해의 등대라고 할까요?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저의 회사 생활 롤모델로서 항상 고맙습니다. 때론 치열한 회사 생활에서 동반자를 넘어 경쟁자로서 서로 발전해나가겠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선배', '내게 가장 따뜻한 선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가 당신이기를 바라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쉽지 않은 업무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내년에는 웃으면서 오늘을 회상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참, 우리 10년 만났는데 단둘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네요. 이번에 사보에 실리면 사보랑 함께 사진 한방 찍읍시다!

● ICT전략팀 김중우 과장 보냄

(창) 생산관리팀 채종혁 사원에게

이번 기회를 빌려 창녕공장 생산관리팀 채종혁 사원을 소개하고,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나이가 가장 많지만, 직원들과 유머를 곁들여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유명합니다. 직원들도 각자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채종혁 사원을 중심으로 커피 타임을 가지면 어느새 모두 크게 웃으며 활기가 생깁니다. 대화 중 의견 차이가 나더라도 큰형처럼 먼저 배려해주는 모습에 인기가 많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업무 경험이 많아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설명 해주어서, 매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들 가족처럼 살뜰히 챙기는 점은 크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에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채종혁 사원이 저 몰래 제 업무를 처리해주고, 비타민과 따뜻한 쌍화탕을 챙겨주었습니다. 본인 업무도 바빻을 와중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형, 고마워요. 형의 곁에도 겨울이 물러나고 따뜻한 봄 같은 형수가 찾아오기를 응원할게요!

● (창) 생산관리팀 김건호 사원 보냄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함께하는 순간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CREATE TOMORROW'S VALUE



여름 바다에서 주의해야 할 6가지

해변의 악몽

눈부신 백사장에 낭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넓디넓은 바다와 모래사장 곳곳에는 여름휴가를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소한 부주의로 휴가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기억해두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글 성열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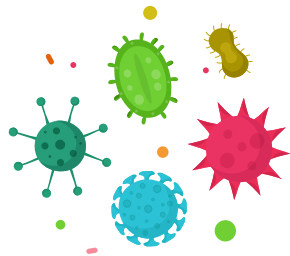
❶ 바닷물도 조심, 결막염

흔히 '눈병'이라 불리는 결막염은 수영장에서만 옮는 게 아니다. 바닷물에 염분이 있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식염수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염된 물에는 결막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서식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잔잔한 바다에서도 결막염에 걸릴 수 있다. 물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가려움, 충혈, 분비물에 시달리게 될 확률이 높다.

눈을 깨끗이 씻어내라 눈이 가려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두 시간에 걸쳐 수차례 수돗물로 씻어내야 한다. 그래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의사를 찾아가자. 항생제 성분의 안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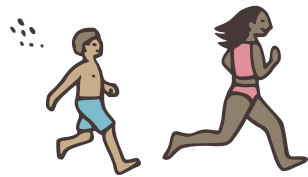
❷ 쿨러도 불안해, 식중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중독 환자의 25%는 6~7월에 발생한다. 박테리아는 따뜻한 환경에서 더 잘 번식하기 때문이다. 얼음을 채워 사용하는 '쿨러(cooler)'를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 얼음이 녹은 물에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다. 식중독이 발병하면 설사, 복통, 구토 및 고열 증상이 나타난다. **포장을 확실하게** 고기나 마요네즈같이 상하기 쉬운 음식은 쿨러 깊숙이 보관해야 한다. 또 음식은 포장한 후 30분 안에 먹는 것이 좋다.



❸ 모기만큼 귀찮아, 모래파리

모기는 피부에 침을 꽂아 피를 빨다. 모래파리는 다르다. 모래파리는 피를 빨기 전에 피부를 이빨로 긁는다. 등에 같은 무는 벌레 역시 피부를 긁는데, 직접적으로 질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환부에 다른 병원균이 침투해 환부가 커질 수 있다. 가렵고 부어오른 부위는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지속된다. **안 물리는 게 최선** 환부를 긁으면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래사장에서 뛰어다니기 전과 수영 후 몸을 말릴 때 디트(DEET) 성분이 있는 방충제를 발라 물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❹ 바닷속에 숨은 지뢰, 해파리

매년 여름이면 해파리 족수에 쏘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 해변에도 해파리 떼가 많이 밀려드는 탓이다. 현재 알려진 2000여 종의 해파리 중 70여 종만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 해파리에 찔렸을 경우 타는 듯한 통증이 수반되고, 붉은빛이나 보랏빛 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

쏘인 부위를 뜨겁게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환부에 열을 가하는 것이 좋다. 열은 독성 물질의 단백질 구조를 변화시켜 통증을 완화시킨다. 신용카드 같은 것으로 침을 긁어낸 다음 온수보다 뜨거운 42~45℃의 물에 쏘인 부위를 20분 동안 담그자. 위급한 상황에서는 종종 다른 사람의 소변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❺ 조용히 다가오는 공포, 이안류

물 안에 존재하는 위험 중 상어가 위협 요소 1순위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익사 사고가 이안류 때문에 일어나며, 우리나라에서도 몇 해 전부터 해운대를 비롯한 주요 해변에서 이안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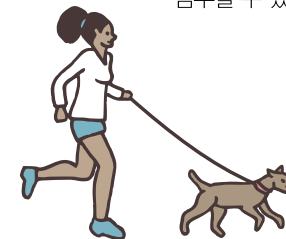
잔잔할수록 조심 미국 생명구조협회(Life Saving Association)에서는 “파도가 잔잔한 곳이 물살이 센 곳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이안류에 휩쓸렸을 때는 해변을 향해서가 아닌,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헤엄쳐야만 빠져나올 수 있다. 빠져나오기 힘들면 해류를 따라가다 해류가 잔잔해지는 곳에서 다시 시도해보자.



❻ 배탈이 잘 나는 이유, 비브리오 패혈증

조개를 먹지 않아도 패혈증에 걸릴 수 있다. 따뜻한 해변 모래 속에 동물들의 배설물이나 하수구와 정화조에서 유출된 대장균이 숨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브리오균은 염분이 낮고 유기물질이 많은 곳, 갯벌이나 모래가 많고 수심이 낮아서 외기의 영향이 많은 곳에서 검출률이 높다고 한다. 감염되었다면 하루 정도 설사에 시달린다.

사소한 것에도 주의 식재료와 식기를 청결하게 한다. 쿨러를 뒤질 때도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깨진 조개껍데기에 살짝만 발을 베어도 병원균이 침투할 수 있으므로, 해변을 거닐 때는 가급적 슬리퍼를 신는 것이 좋다. ㉞



64%

해양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명 구조한 690명 중 튜브 물놀이 안전사고가 438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물놀이용 튜브는 부력이 좋지만 부피가 커서 바람이나 파도에 잘 떠밀리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은 날 튜브만 믿고 입수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하며, 물놀이 전에 준비운동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름철 피부 관리 노하우 태양을 피하고 싶지 않아!

고온다습한 날씨와 자외선, 미세먼지까지, 피부 관리에 악조건을 다 갖춘 여름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관리 노하우가 있지만 올바른 생활 지식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알지만 잘 알지 못하는 여름철 피부 관리의 오해와 진실 다섯 가지를 짚어보았다.

글 조혜나(패션&뷰티 칼럼니스트)

선크림을 쓰면 트러블이 생겨요. 그렇다고 안 바를 수도 없고요. 사용하는 선크림의 SPF 지수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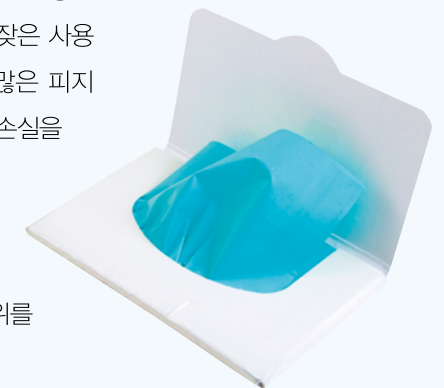
SPF 지수는 자외선 차단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트러블과는 무관하다. 이 경우 선크림의 성분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선크림은 피부에 얇은 막을 생성해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무기자외선 차단제와 자외선을 피부에 흡수시켜 화학적 반응으로 소멸시키는 유기자외선 차단제,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민감성 피부라면 무기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해야 한다. 유기자외선 차단제에 포함된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나 옥시벤존 등과 같은 화학 성분이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표기된 성분을 살펴보면 쉽게 구분 가능하다.



기름종이를 쓸수록 피부에 유분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름종이를 자주 쓰면 되레 피부에 독이 된다고 하던데요?



유분과 피지를 조절해주고 메이크업을 보정해주는 기름종이는 여성들의 여름철 필수품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잦은 사용은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고, 피지선을 자극해 더 많은 피지 분비의 원인이 된다. 적당량의 피지는 피부의 수분 손실을 방지하고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름종이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사용할 때는 기름종이를 피부 표면에 문지르거나 비비는 행위를 삼가고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한다.



날이 더워지면서 늘어진 모공이 눈에 거슬립니다. 프라이머를 쓰면 모공이 좁아지나요? 프라이머를 쓰면 모공이 막혀서 되레 넓어지지 않나요?



프라이머는 모공 축소 효과를 지닌 제품이 아니라 모공을 커버해주는 메이크업 제품이다. 모공 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공기 중의 먼지나 노폐물, 미세먼지가 모공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 모공 건강에 도움을 준다. 모공 속에 침투한 유해 물질은 피지와 엉겨붙어 모공을 넓힐 뿐 아니라 다양한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단! 프라이머 또한 모공을 일시적으로 막는 제품이기 때문에 귀가 후 꼼꼼한 클렌징은 필수다. 모공 속 노폐물을 말끔히 녹여주는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폼을 사용한 2차 클렌징으로 세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날이 더워지니 발 냄새가 심해졌어요. 도와주세요. 비누로 발을 깨끗하게 씻고 건조시키는 방법밖에 없나요?



발 냄새의 주원인은 '트리코피톤 균'! 비누보다는 이 균을 제거해줄 발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외출 전에는 발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발가락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완벽히 제거해야 한다. 파우더 타입 풋 데오도란트를 사용해 발에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낮 시간에는 간편하게 뿌릴 수 있는 발 냄새 제거 스프레이를 이용한다. 신발 또한 자주 세척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신발 전용 스프레이를 수시로 분사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

촉촉한 쿠션 파운데이션 퍼프는 쓸 때마다 짹짹해요. 퍼프에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으니 자주 세척할까요?



일반 파운데이션이나 메이크업 팩트와 달리 쿠션 파운데이션은 습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퍼프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제품 사용 후 뚜껑을 꼭 닫아야 하며, 일주일에 1~2회 정도 퍼프를 세척하는 것이 좋다. 세척 시 알칼리성 비누를 사용하면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퍼프를 올려놓는 플라스틱 부분을 소독용 에탄올로 닦아내는 것 또한 세균 박멸을 위해 필요하다. 최근에는 스스로 살균되는 자가 살균 용기를 사용한 제품, 세균 증식을 막는 퍼프가 출시되기도 했다.



알찬 재미가 가득한 사이판 여행

온몸으로 즐기고, 가슴으로 느껴요

제주도만큼이나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름의 휴양섬, 사이판. 발 디딘 곳 외에 온통 바다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작은 섬은 바다와 섬 곳곳이 레저 스포츠 천국이다. 사이판에 가면 꼭 한 번 경험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보았다.

글/사진 김섫별

사이판에 가면 무조건 해야 하는 액티비티가 있다. 오직 사이판에서만 볼 수 있는 그루토 동굴은 꼭 갈 것. 본섬에서 마나가하 섬까지 배가 아닌 반잠수함을 타고 갈 수 있다는 소식도 입수했다.

우죽는 맑은 신비한 바다, 그루토 스노클링

머리 위로는 탁 트인 하늘이, 그 아래에는 호수처럼 펼쳐지는 푸른 빛깔의 바다와 주변을 감싸는 깎아지른 절벽에 난 해식동굴. 108개의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면 한 움큼의 바다가 나타난다. 아치처럼 보이는 세 개의 동굴이 외해를 막아 자연 수영장을 만들어낸 그루토 동굴은 사이판 동쪽에 있어 아침 햇살이 바다를 뚫고 눈부신 광경을 자아낸다.

그루토 동굴을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루토 동굴 속으로 '퐁덩' 뛰어들고, 스노클링으로 즐기고, 다이빙으로 동굴 안을 체험해볼 수 있다. 특히 그루토 동굴은 세계 3대 스쿠버다이빙 포인트 중 하나로, 청명한 바닷속 세 개의 동굴을 탐험하는 신비로움이 백미다.

동굴 안쪽에서 유영하는 물고기들을 구경하는 것, 갑작스럽게 해수면이 쪽 내려갔다 천천히 차오르는 신기한 경험, 바닷속까지 비치는 햇살에 80미터 바닥이 훤히 보이는 등 이 오묘하고 신비한 아름다움은 사이판이 아니면 보지 못할 풍경이다.



하얀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 마나가하 섬

같은 스노클링이라도 사이판에서는 어디서 스노클링을 하느냐에 따라 제각기 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그루토 동굴이 마치 우주를 닮은 심해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면, 마나가하 섬은 우리가 상상하는 남국의 이미지 그 자체다.

사이판 본섬에서 10~15분 정도면 가는 마나가하 섬은 사이판에 온 사람이라면 꼭 들르는 작은 섬. 무인도로 섬 둘레에 산호들이 자연적으로 방벽을 이루고 있어 파도가 적고 수심이 얕아 특히 아이가 있는 가족 여행객들이 즐기기에 좋다. 하얀 백사장, 에메랄드빛 얇은 바다와 조금씩 코발트 빛으로 짙어지는 바다는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낮은 수심에서 물고기를 볼 수 있어 스노클링을 하기도 좋고, 끝 지점은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바나나보트, 트롤링(낚시), 제트스키, 웨이크보드, 패러세일링을 즐기며 마나가하 섬 앞바다를 신나게 가로질러 보자.

마나가하 섬을 오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페리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반잠수함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다. 보통 페리와 반잠수함을 편도로 끊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페리로 이동할 때는 아름다운 바다와 마나가하 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반잠수함은 바닷속을 보며 들어갈 수 있어 각각 한 번씩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서양으로 물드는 바다, 선셋 크루즈

이제껏 사이판의 바닷속을 마구 헤집었다면, 이제 잔잔한 사이판의 해수면 위에서 풍광을 즐길 차례다. 선셋 크루즈는 해질 무렵의 사이판 바다를 가장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마나가하 섬을 향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식사를 하고 일몰을 감상한 후 돌아오는 코스로, 바다 한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포인트에서 하늘과 맞닿은 사이판의 바다 풍경을 일몰 전후로 감상할 수 있다.

선셋 크루즈에는 보통 저녁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식사를 하는 것이 팁이다. 식사를 빨리 마쳐야 일몰을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기 때문.

바다가 태양을 삼키면 그 뒤로는 다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이다. 춤을 못 춰도 괜찮다. 직원들이 손을 잡고 스텝을 알려주니까. 춤을 못 춰도 빼지 말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시끌벅적한 공연에 박수 치며 웃어보자. 그 순간은 분명 잊지 못할 사이판의 절정일 테니.

놓치면 아쉬울 또 다른 사이판의 얼굴들

다양하게 바다를 즐긴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사륜구동 지프를 타고 동부를 둘러볼 수 있는 ‘정글 투어’도 놓치면 아쉽다.

사이판의 가장 높은 산인 타포차우 산 정상 전망대에서는 가라판 시내부터 마나가하 섬까지 한눈에 내려다보여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한다. 물놀이를 하며 수면 가까이에서 사이판의 바다를 즐겼다면, 파노라마 뷰로 사이판의 바다를 눈에 담을 수 있는 포인트다. 바다만 있는 줄 알았던 사이판에 이렇게나 많은 녹색 숲이 있었는지 놀랄 정도로 초록의 띠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다음으로 향하는 곳은 제프리스 비치. 오프로드 지프를 타고 방금 눈으로 확인한 초록 숲을 지나가면 기이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해변을 만날 수 있다. 깎아지른 절벽 중 바다와 맞닿은 부분이 서양인의 얼굴과 닮았다는 ‘서양인 바위’가 있는데, 잘 맞춰 포즈를 취하면 서양인과 키스하는 듯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인기다.

산타루데스는 사이판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가톨릭 성지다. 산타루데스 성당은 동굴 안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가톨릭 최초의 십자가가 모셔져 있다. 이 주변을 보호하듯 오래된 나무뿌리가 내려앉아 있다. 태평양전쟁의 포화에서도 이곳은 무사했다는 전설을 실감할 수 있다. 사이판의 수돗물은 산호 가루가 섞여 있어 마실 수 없지만, 신기하게도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온다. 이 때문에 사이판에서는 이 우물가를 ‘마리아의 성수’라 부르며 모든 병을 낫게 한다는 전설이 내려오기도.



Travel Tip



Where to Stay

피에스타 리조트&스파

피에스타 리조트&스파는 사이판 시내인 가라판 중심부에 있어 최적의 위치를 자랑한다. 한 객실에 최대 5인 투숙이 가능해 가족 여행객들에게도 안성맞춤. 저녁이면 차모르 원주민의 바비큐 디너쇼가 열리며, 두 개의 수영장은 야간에도 이용 가능하다.

What to Eat

부바 검프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테마로 미국 등 전 세계에 체인을 가지고 있는 새우 요리 전문점 '부바 검프'가 최근 사이판에도 생겼다. 새우튀김, 새우완자 등 다양한 새우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예원

사이판에서 생참치회와 라임소주는 꼭 맛봐야 할 메뉴다. 얼린 참치회가 아니라 그날 잡아 그날 맛볼 수 있는 생참치회와 소주에 생라임즙을 넣고 우롱차를 섞어 마시는 라임소주는 찰떡궁합이다.

Where to Go

로하스 마사지

매일 물놀이로 피로가 쌓였다면, 로하스 마사지에 들러 말끔히 피로를 풀어보자. 한국인이 운영해 청결하며, 원주민 농장에서 일주일에 1~2차례 공수해오는 천연 코코넛 오일로 햇빛에 자극받은 피부를 안정시켜준다.

* 사이판 비행 정보

인천~사이판은 아시아나 · 티웨이 · 이스타 · 제주항공 직항편이 매일 출발한다.

약 4시간 30분 소요. ㉠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UP! 입맛을 돋우는 다이어트 식단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해서 맛이 없다는 편견은 잠시 넣어둬도 좋다. 평생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고 살을 뺄 수는 없다. 과일과 채소를 더해 영양도 잡고 맛도 살리는 요리를 소개한다.

자료협조 <한 그릇 집 밥 다이어트 레시피> 비타복스

닭가슴살 롤스테이크

재료

양배추 2장(50g), 생닭가슴살 130g, 소금 2꼬집, 후춧가루 · 크러시드레드페퍼를 약간씩, 빨강 · 노랑 파프리카 1/7개씩(60g), 부추 10줄기, 느타리버섯 1/2 줌(30g), 올리브오일 1큰술, 방울토마토 13~15개

만드는 방법

- 1 양배추는 흐르는 물에 씻은 뒤 얇게 채썰어 찬물에 담근다.
- 2 생닭가슴살은 반으로 저며 넓게 펼치고,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려 밀간한다.
- 3 빨강 · 노랑 파프리카는 채썰고, 부추는 파프리카와 같은 길이로 썬다. 느타리버섯은 밑동을 잘라내고 한 가닥씩 찢는다.
- 4 양배추는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 5 밀간한 생닭가슴살 위에 손질한 채소를 모두 올리고, 끝에서부터 돌돌 말아 꼬치로 고정한다.
- 6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생닭가슴살을 중간 불에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굽는다. 한 김 식힌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접시에 담고, 크러시드레드페퍼를 뿌린다. 양배추와 방울토마토를 곁들인다.



200℃로 예열한 오븐에
20분간 구워도 맛있다.

전자레인지 가지밥

재료

부추 5줄기, 고춧가루 · 간장 · 참기름 · 통깨 1/2큰술
 씩, 가지 1/2개(60g), 양파 · 당근 1/10개(20g)씩,
 현미밥 2/3공기(130g)

만드는 방법

- 1 부추는 흐르는 물에 씻은 뒤 잘게 다진다.
- 2 작은 그릇에 고춧가루와 간장, 참기름, 통깨를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 3 가지는 길게 반으로 자른 뒤 반달 모양으로
 썰고, 양파와 당근은 채썬다.
- 4 내열 용기에 현미밥과 가지, 당근, 양파를 담고
 랍을 씌운 뒤 구멍을 군데군데 낸 다음 전자레인지
 에 넣고 3분간 익힌다.
- 5 양념장을 곁들인다.



고구마가 크면 작게 썰어서
 익힌다. 고구마 대신 단호박,
 사과 대신 파프리카를
 넣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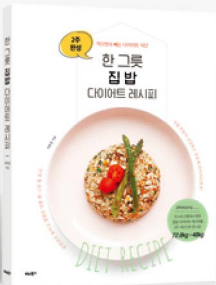
고구마 사과 토르티야 롤

재료

고구마 2개(200g), 어린잎채소 · 견과류 2줌
 (20g)씩, 사과 1개(200g), 저지방 크림치즈 ·
 알룰로스 올리고당 1큰술씩, 시나몬 가루 약간
 (생략 가능), 통밀 토르티야 2장

만드는 방법

- 1 고구마는 흐르는 물에 씻은 뒤 필러로 껍질을 벗긴다. 키친타월로
 고구마를 감싼 뒤 물을 충분히 적셔 전자레인지에 넣고 4~5분간 익힌다.
- 2 어린잎채소는 흐르는 물에 씻은 뒤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사과는
 반으로 잘라 씨를 제거하고 껍질째 채썬다.
- 3 견과류는 칼로 잘게 다진다.
- 4 큰 볼에 고구마와 견과류, 저지방 크림치즈, 알룰로스 올리고당, 시나
 몬 가루를 넣는다. 숟가락으로 으깨며 섞어 고구마 페이스트를 만든다.
- 5 마른 팬에 통밀 토르티야를 앞뒤로 10초씩 굽는다.
- 6 통밀 토르티야 위에 고구마 페이스트를 펴 바른다. 사과와 어린잎채
 소를 올리고 끝에서부터 돌돌 말아준 뒤 한입 크기로 썬다.



직접 만들어 먹은 음식으로 25kg을 감량한 인스타그램에 최희정이 수많은 다이어트 경험을 통해 찾은 해답을 전한다. 포만감을
 높이고 몸은 가볍게 만들어주는 집밥 레시피를 체계적인 식단으로 제시해, 건강한 다이어트 노하우를 책에 담았다.



넥센인의 / 넥센인에 의한 / 넥센인을 위한

바로 이 집

👍 전라 지역
김진식 과장 추천

진흥 불고기



1. 이 집을 좋아하는 이유

그날 잡은 소 부챗살 중 가장 좋은 부위만 준비하는 사장님. 주문과 동시에 오래된 저울에 계량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간다. 신선한 부챗살 고기 맛도 물론 일품.

2. 이 집 추천 메뉴

부챗살, 육회비빔밥

3. 이 집 특징

소고기 두부무국 무한 리필 서비스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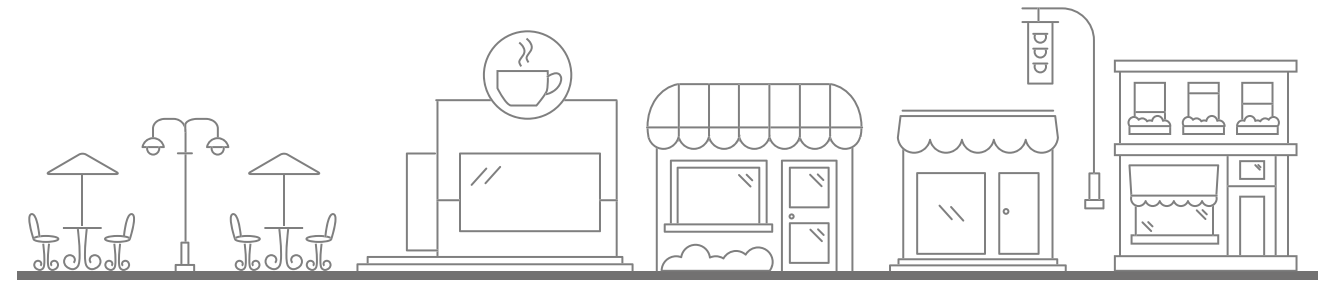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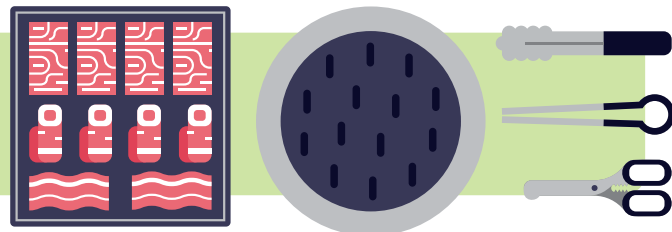
★ 추천인 한마디

37년 역사를 자랑하듯 가게 곳곳이 허름하고 불판도 오래됐다. 이런 분위기가 정 많은 사장님과 직원들의 푸짐한 서비스를 돋보이게 한다. 가끔 가족이나 친구와 고기도 맛보고 정도 맛보러 가는 곳이다. 타지 손님에게 한 번만 대접하면 '그 소고기 맛을 못 잊겠다'고 하는 곳이라 어깨가 으쓱해진다.

#한번도안간사람은있지만한번만간사람은없다

#부챗살 #부채질하듯시원할것만같은느낌

- ▶ 위치 광주시 서구 경열로14번길 3-2
- ▶ 영업시간 12:00 ~ 22:00
- ▶ 가격 소고기 200g 22,000원



👍 영업전략팀
최원석 대리 추천

비너스본사 전너편 갈비살



1. 이 집을 좋아하는 이유

훌륭한 갈비살 맛과 포장마차 같은 분위기가 최고.

2. 이 집 추천 메뉴

갈비살(본갈비살, 마늘갈비살) 단일 메뉴

3. 이 집 특징

테이블이 4~5개에 불과해 예약 필수. 그러지 않으면 대기 시간은 무한정, 갇힘무침, 무김치 등 밑반찬 맛 이상당히 뛰어나다. 참고로 사장님이 우리 회사 넥센 타이어를 굉장히 좋아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다.

★ 추천인 한마디

강남 한복판에서 포장마차 느낌의, 소박하지만 꿀맛 같은 갈비살을 맛보려면 강력 추천.

메인 메뉴인 갈비살뿐만 아니라 맛깔 나는 밑반찬들이 차마 자리를 뗄 수 없게 할 것.

#갈비살 #너무웃어갈비아픈느낌알지

- ▶ 위치 서울시 서초구 주흥길 82
- ▶ 영업시간 그때그때 다름, 예약 필수
- ▶ 가격 1인분 16,000원



특별한 여름휴가 넥센인을 위한 문화생활

아직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이 페이지를 정독해보자. 넥센인들이 즐기기 좋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모았다.

정리 김지혜



대구치맥페스티벌

폭염이 내리쬐는 7월 '2018년 대구치맥 페스티벌'이 두류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닷새간 이어지는 올해 치맥페스티벌은 잔디밭에 앉아 단순히 치킨을 뜯고 맥주를 마시는 축제에서 탈피, 재미를 주는 다양한 이색 콘텐츠가 가득하다. 교촌치킨, 땅땅치킨 등 70여 개 치킨 업체가 부스를 차리고, 10여 개 맥주 브랜드가 참가할 예정이다.

기간 7월 18일~7월 22일
장소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36
문의 053-248-9998,
www.chimacfestiv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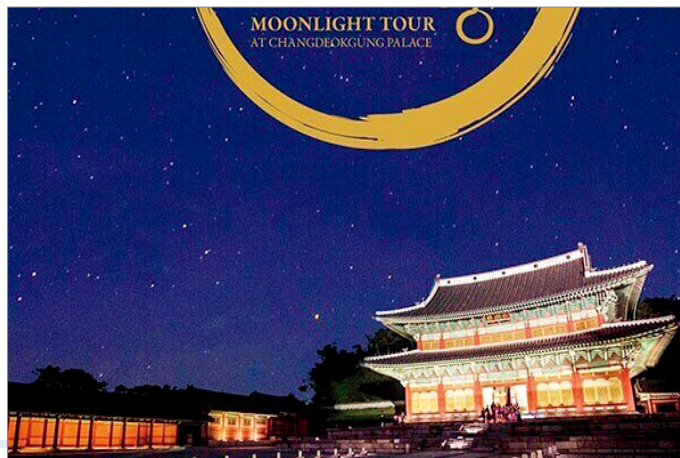


그린플러그드 동해 2018

여름의 푸르른 기운과 뜨거운 열정을 담아 가장 이상적인 휴가 공간이 마련됐다. 올해 처음으로 '그린플러그드 동해'에서 EDM, 스카 & 레게, 디제잉 등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다양한 휴양과 활동이 공존하는 망상 해변에서 더위를 날려보자.

기간 7월 21일~7월 22일
장소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393-16
문의 blog.naver.com/gpdfestival

축제



창덕궁 달빛기행

열대야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밖으로 나와 달빛을 보며 걸어보자. 올해로 9년째를 맞는 창덕궁 달빛기행은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문화 행사다. 다채로운 전통 예술 공연뿐만 아니라 창덕궁과 조선왕조 이야기를 전문 해설가에게 들을 수 있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창덕궁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

기간 10월 28일까지
장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99
문의 02-2270-1243, www.cht.or.kr

공연



연극 <불편한 타이밍>

정민은 아내가 친정에 간 틈을 타 친구 오호와 강건을 집으로 초대한다. 다음날 집은 난장판이 되어있고 집주인 정민이 사라졌다. 오호와 강건은 정민을 찾아보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친구들은 정민을 찾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기간 10월 28일까지
장소 부산 중구 구덕로34번길 4 BNK부산은행조은극장
문의 1661-6981



연극 <달동네>

정음의 아버지 경민은 행정착오로 월남전 전사자 처리가 되고 아내 헤자는 딸 정음과 막내 정용을 이끌고 부산의 달동네에 자리잡고 살아간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음이네 가족과 달동네 사람들. 하지만 심한 화상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뿐 살아있었던 경민이 귀향하고 가족을 찾아 나선다.

기간 오픈런
장소 부산 남구 용소로13번길 36-1 용천지탈소극장
문의 1600-1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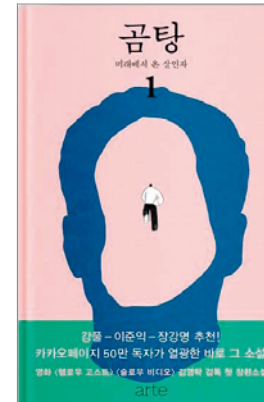
마르크 샤갈 특별전 - 영혼의 정원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개인 컬렉터 7명의 소장품이 전시된다. 총 238점의 원화 작품, 20여 점의 책자,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25점의 작품까지 역대 최대 규모다. 다양한 미디어로 풀어낸 샤갈의 일부를 전시장 내부 곳곳에서 만날 수 있어 색채의 미술사 '마르크 샤갈'이 친숙하게 다가올 것이다.

기간 8월 18일까지

장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0 1F M컨템포러리

문의 02-3451-8187, www.m-contemporary.com



곰탕

김영탁 저 / 아르테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되어 50만 독자들이 열광한 <곰탕>은 영화 <헬로우 고스트>의 김영탁 감독이 쓴 첫 장편소설이다. 쓰나미 이후 안전한 윗동네와 위험한 아랫동네로 나뉜 2063년의 부산에서 2019년의 부산으로 시간여행을 하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그려진다.

#타임워프 #공포_스릴러_소설
#흥미진진_복선과_반전
#미래에서_온_살인자
#겔렌데마법 #사랑의_마법



흰

한강 저 / 난다

한국인 최초의 맨부커상 수상 작가 한강의 신작 소설.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 소설은 65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의 모든 '흰 것'들에 대해 써 내려간 한강의 문장 속에서 깊은 서사를 만나 보자.

#맨부커상_수상_작가
#흰_것에_관한_이야기
#신비로운_텍스트 #여운

전시

Weather :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

햇살, 흐림, 눈, 비, 안개 등 날씨를 주제로 한 사진은 물론 촉각과 청각을 극대화한 설치 작품까지 작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소개한다. 세계적인 아티스트 26명의 서로 다른 시선이 담긴 170여 점의 작품은 날씨에 대한 감수성을 확장시킨다.

기간 10월 28일까지

장소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29길 5-6 Replace한남 F동 디뮤지엄

문의 070-5097-0020, www.daelimmuseum.org/dmuseum



플라스틱 가든

프랑스 퐁피두센터 교육팀에서 그래픽 작가 크리스토프 달렉이 작품의 창작 원리를 이용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소아병동의 어린이들에게 인공의 정원을 창작해보게 하고 일상적 사물의 변신을 통해 창작의 범위를 넓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번 전시는 많은 관람객에게 자연의 내밀한 풍경을 상상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줄 것이다.

기간 8월 19일까지

장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96 경남도립미술관

문의 055-254-4600

책



소공녀 세라, 어른의 안부를 묻다

박내선 저 / 행복한시간

어른이 되어서도 당신을 지켜줄 따뜻한 기억을 담았다.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명작 동화 40편 안에 녹아 있다. 두근두근 설레고 가슴 따뜻한 주인공과의 만남을 기대해보자. 순수하고 행복했던 어린 '나'를 기억하게 하는 시간을 선물받을 것이다.

#명작_속_진리 #신데렐라
#어린이를_위한_필독서 #힐링타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나이트 요시히토 저 / 홍익출판사

기분 나쁜 말을 들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 은근히 무시당해 서러울 때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 순간 꼭 필요한 말을 센스 있게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대처법을 소개한다. 말이라는 무기로 단숨에 상대를 제압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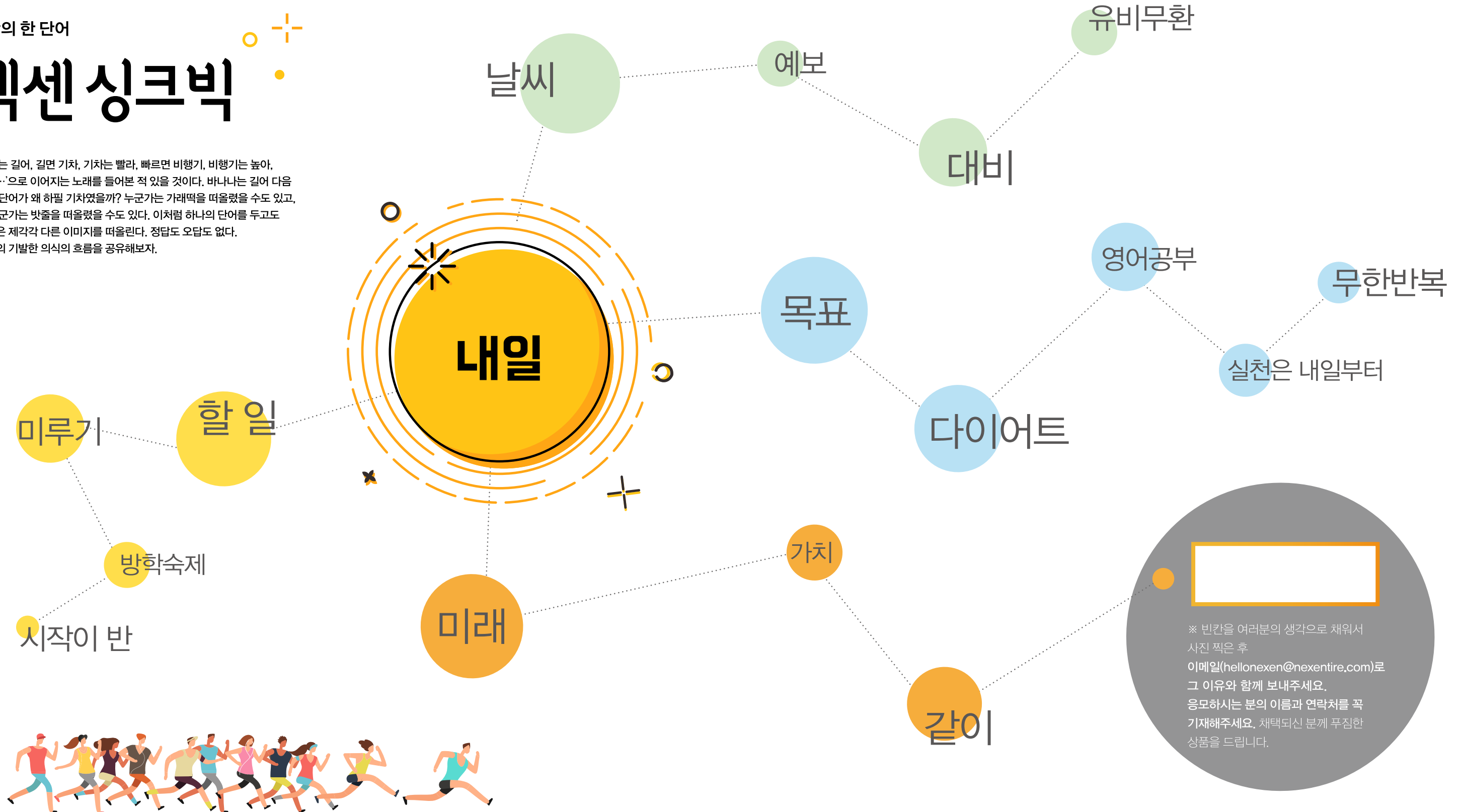
#대화의_기술 #자존감지킴이 #NO맨 #직장의_고수

나만의 한 단어

넥센 싱크빅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으로 이어지는 노래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바나나는 길어 다음 떠올린 단어가 왜 하필 기차였을까? 누군가는 가래떡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밧줄을 떠올렸을 수도 있다. 이처럼 하나의 단어를 두고도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이미지를 떠올린다. 정답도 오답도 없다. 넥센인의 기발한 의식의 흐름을 공유해보자.

글 김혜진



※ 빈칸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채워서
사진 찍은 후
이메일(hellonexen@nexentire.com)로
그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기재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2018년 여름호

〈헬로우 넥센〉참여 후기

여름호 제작에 참여해주신 넥센타이어 사우들의 따스한 후기, 함께 읽어요.



중아팀
김재현 사원

잘생겼다는 이유로 사보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쁩니다. 하하하. 난생 처음 서핑을 접해봤는데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사진 촬영 때 배를 집어넣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임직원 누구나 사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에서 힘을 발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태팀
김동현 사원

좋은 기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노보드도 타고 파도타기도 해봐서 자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군요. 강사님이 파도에 몸을 맡겨 무게중심을 뒤로 유지해야 한다는데,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막상 거센 물살이 앞에서 오니 저도 모르게 물에 저항하며 중심을 잃고 넘어져버렸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느꼈던 어린 시절의 신나는 기분을 다시 한번 경험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NEWPLM TFT
육남석 팀장

요즘 일이 바빠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패밀리 데이 촬영으로 부산 기장에 가서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이 부모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보다 엄마 아빠가 더 재미있었다는 건 비밀!



(창) 성형파트
조현철 파트장

파트를 책임지고 이끌어간다는 중압감은 컸지만 함께 노력해주는 진대원 대리를 비롯한 직장님들의 노고가 많았기에 지금껏 우리 파트가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현장의 동료들이 안전하고 웃음 넘치는 부서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줘서 파트장으로서 동료분들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성형파트가 되길 바라며, 모두 파이팅입니다.



(창) 성형파트
진대원 대리

성형파트를 소개하는 자리에 교대 근무 특성상 모든 성형파트 사우와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따뜻한 봄날 좋은 날씨에 진행된 야외 촬영이 무척이나 유쾌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며, 항상 단합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성형파트를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 우리 팀 및 동호회 자랑하기
-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 ▶ 동료와 함께 추억 만들기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독자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QR코드를 확인하시면
독자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헬로우 넥센〉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문화혁신팀 김희진 대리

02-3480-0369 hellonexen@nexentire.com

넥센 싱크빅 당첨자

신민호 대구 유가면 테크노창업로 (인공지능)

김미숙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빅데이터)

독자 선물 당첨자

박웅 울산 남구 두왕로

이광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로



NEXEN
NEXEN TIRE

OFFICIAL PARTNER OF MANCHESTER CITY
PREMIER LEAGUE CHAMPIONS 2017/18

WE ARE THE CHAMPIONS

